

가천대학교

국내 최초 반도체 대학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하와이 캠퍼스

스타트업칼리지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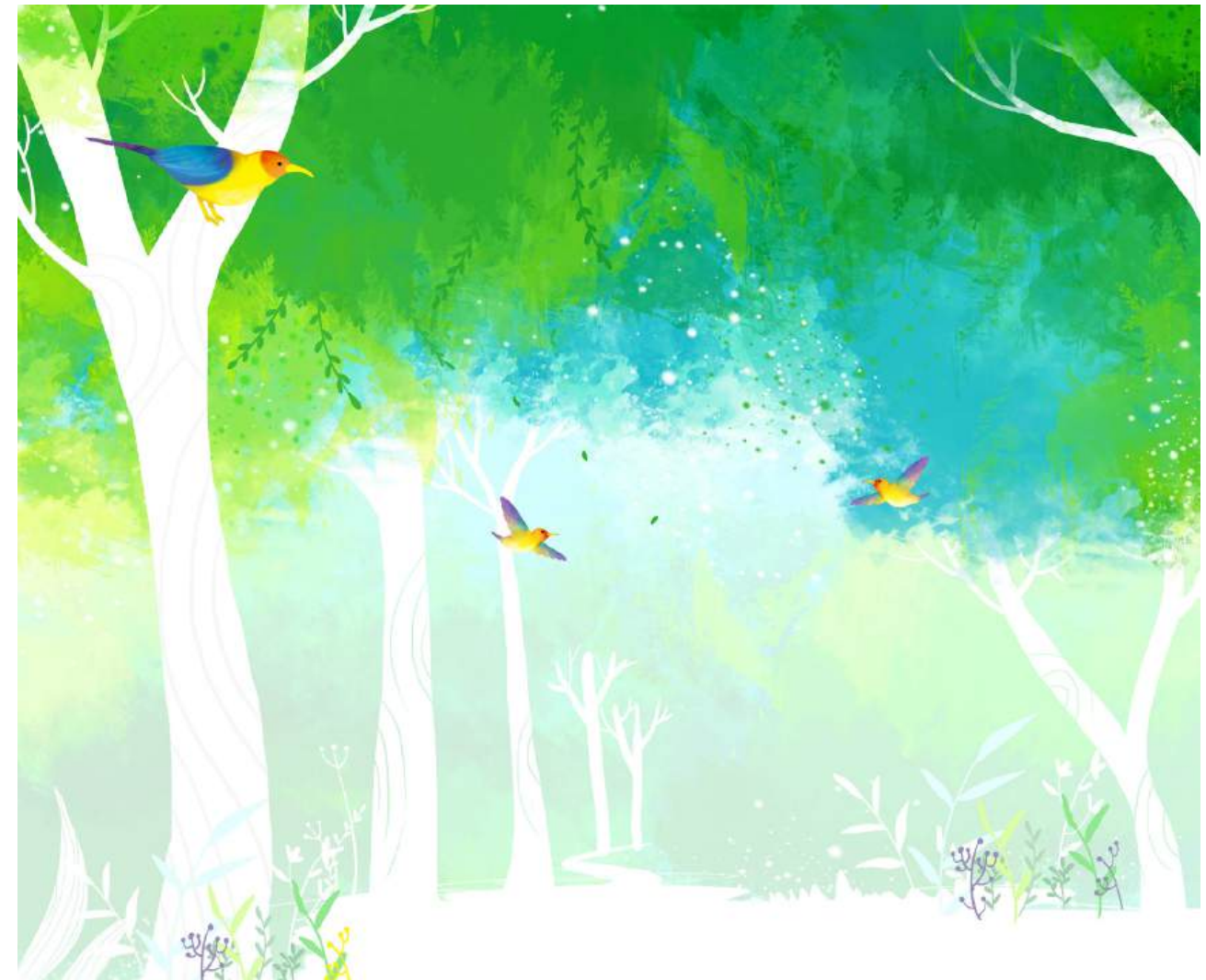
국내 최초 연구중심병원

국내 최초 닥터헬기

국내 최초 중성자 암치료기

사립대 최초 국가지정 암센터

경인 최초 CAR-T 암치료센터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6 Vol.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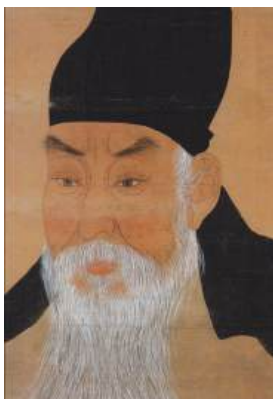
여름

茶文化



우통수에 버금가는 찾물로 차를 우리고 싶다

신익성(申翊聖)(1588~1644) 은 영의정 신희(申欽)의 아들이면서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한 선조의 부마로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졌다. 그는 시와 서화, 특히 전서(篆書)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당시 공을 세웠으나, 1642년(인조 20) 척화파로 지목되어 청나라에 억류되기도 하였다. 『낙전당집』 이외에도 『낙전당귀전록(樂田堂歸田錄)』, 『북정기(北征錄)』 등의 저작이 있다. 그는 다수의 시를 남겼으며, 그의 시는 전원에서 차를 마시며 노래한 시들이 다수 있다. 그의 다시 중 '촌거잡흥'을 살펴보자.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베갯머리는 하늘에 가깝고 / 몸뚱이 곁으로 해가 기우네.

봄 새는 안개 너머에서 노래하고 / 산나물은 눈 속에서 짝이 트네. / 외물이 어찌 누가 되랴.

그윽한 거처가 자랑할 만하네. / 술 몇 잔에 살짝 취하니 / 목을 축이려 햇차를 들어켜네.

신익성은 선조의 부마로 역사적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을 관조했던 그는 다시(茶詩)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병자호란 때는 척화론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왕실의 종친으로 정치를 할 수 없어 그는 시와 서화 등 문필활동에 집중하였다. 신익성은 시 1,700여 편과 글 400여 편을 모아 '낙선당전집'을 간행했다. 그의 '낙선당전집'에 수록된 다른 시 이외에도 산문이 있다. 간략한 산문 '금강산 유람 소기'를 살펴보자.

오대산의 크기는 금강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데다 봉우리는 원만하고 수석은 절경이 없다. 오직 작은 웅덩이 우통수(于同水)가 한강의 발원이 되는 것이 기이한데, 세상에 이는 물이 특별하다고 한다. 내가 한 모금 마셔 보니 달고 차며, 차를 달이니 더욱 훌륭했다.

신익성이 1631년 44세 가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강릉을 거쳐 오대산에 올랐다가 섬강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돌아왔다. 이때 쓴 기록 일부이다. 이 기록에 한강의 발원지이자 찾물이 가장 좋다는 '우통수'가 나온다. 차인들은 차도 중요하지만, 찾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맛있는 찾물로 향기로운 차를 마시고 싶은 여름이다. ☺

[표지 이야기]

6월은 젊음이 충만한 계절이다. 무르익은 녹음과 화려한 꽃들이 압도되 피어난다.

아름다운 계절에 마시는 차 한 잔은 여유와 차분함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계절을 열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이 봄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6 Vol. 162 여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인천은 규방다례의 산실이자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숨결이 숨쉬는 곳입니다
- 006 차의 날 지정 | 차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 008 특집 1 | 교토지부 10주년 탐방 및 임원 해외 워크숍
- 024 특집 2 | 제24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
- 030 여행이 있는 풍경 | 인천 여행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6 협회 포커스 | 스승의 날 행사
- 040 지부장 칼럼 1 |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3)
- 044 지부장 칼럼 2 |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2)
- 046 스페셜 논단 |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 발전 방향(2)
- 052 건강한 삶 | 뇌졸중
- 054 회원 글밭 | 차(茶), 차(茶), 차(茶)
- 070 협회 소식 | 정기이사회 개최 외
- 080 차문화 기행 | 22기 교토 차문화기행

茶情茶感 • 찾임이 맺어준 인연

- 082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아산지부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 103 2026년 7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104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및 우수료 명단



인천은 규방다례의 산실이자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숨결이 숨쉬는 곳입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롭고 향기로웠던 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과 강렬한 태양이 여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과 함께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여름 햇살 아래 질어가는 녹음처럼 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는 5월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달입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는 ‘고산양지 경행행지(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높은 덕)을 우러르고 큰 길(밝은 행실)을 따른다”는 뜻으로 훌륭한 스승의 높은 덕망과 열정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후학들의 다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협회의 스승이자 한국 차문화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신 고(故) 인설(仁設)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삶과 정신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그 걸음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차(茶)의 날(5월 25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1981년 ‘차(茶)의 날’ 제정에 참여하신지 실로 45년만의 결실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국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방다례가 전승하고자 하는 차문화는 우리의 곁에 늘 있던 생활이자 예(禮)의 미학입니다. 일찍이 세계적인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조선의 소박한 공예품과 사발을 보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속에

가장 위대한 미(美)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규방다례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기로 결정한 것은 규방다례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차를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대접하며 배려했던 선조들의 멋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적 치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극한 인천 사랑입니다. 인설(仁設)의 인(仁)은 공자의 ‘인’이자 인천(仁川)의 ‘인’입니다. 명예이사장님은 1958년 29세에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하셨고 2002년 인천광역시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자란 곳은 고향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천에서 활동하셨으니 인천 사람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육, 문화, 의료를 아울러 인천에는 명예이사장님의 일생이 녹아 있는 고장입니다.



인천에 오셨을 때 명예이사장님께서 사랑했던 곳을 추억하며 여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인천은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났던 개항의 도시입니다. 한·중·일의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근대의 거리가 남아 있고 조선에 다다른 낯선 서양문화의 흔적, 아울러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마니산, 전란 속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등사, 고려 궁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 유적과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에 남겨진 이규보의 차시(茶詩)를 읊으며 차유(茶遊)를 즐기시길 바라며, 가천박물관도 들려 인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셨던 명예이사장님의 애뜻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인여러분을 인천광역시로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차의 날(5월 25일) 법정기념일 제정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난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에서 '차(茶)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5년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위하여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1년만에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 귀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고(故) 인설(仁設)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한국차인연합회 결성에 참여하시고 한국의 차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차(茶)의 날'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시며 선언문 초고를 주문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1981년 5월 25일 진주에서 전국의 차인들이 모인 가운데 '차(茶)의 날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엔에서도 2019년에야 국제 차의 날이 지정되었으니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과 우리나라 차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월 25일은 입춘에서 100일이 지난 날로 햇차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전국의 차 관련 단체는 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며,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6회째이니 실로 반세기만에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염원하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법정기념일이란 국가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갖고 지정된 날입니다. 법정기념일이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의식이나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그 가치와 정신을 기리며 관련된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발전을 응원하게 됩니다. '차(茶)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으니 첫째, 민간 차원의 행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매년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전통 차(茶)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이자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셋째, 차를 마시는 문화를 넘어 가공, 유통 등 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문화의 발전은 차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차(茶)의 날'은 국가가 주관하는 첫 번째 법정기념일로서의 '차(茶)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차(茶)는 K-푸드와 함께 전세계에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차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보성, 하동, 제주 등 주요 차 생산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차 소비를 촉진하는 국가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봄 회지에서 우리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들께 한국 차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차인으로서의 비상을 가슴에 품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차(茶)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차문화를 지켜온 선고차인과 차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고(故) 인설(仁設)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랜 기다림 속에 얻게 된 기회를 살려 차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일본 교토지부 개설 10주년 행사와 임원 해외 워크숍

3박 4일 동안 한국 차문화와
일본 차문화 비교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게 있다. 멀리 간다고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체득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교토지부 개설 10주년 행사 및 임원 해외 워크숍이 지난 4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교토와 오사카에서 열렸다. 협회 임원 34명과 스태프 2명 등 총 36명이 참석한 이번 해외 임원 워크숍은 교토지부 개설 10주년 행사로 더욱 의미가 컸다. 협회 최소연 이사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알찬 워크숍'이 되었다. 3박 4일 간의 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소연 이사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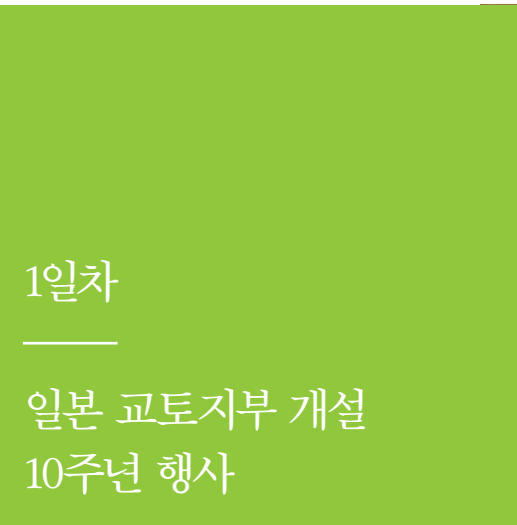
조화미 지부장 인사말



최소연 이사장님께 감사패 수여



교토지부에 우리 협회 임원 일동 금일봉 및 다식 전달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를 시연하고 있는 우리 협회 전문사범과 교토지부 회원들



2026. 04. 05.



2026. 04. 05.

여행가는 날은 긴장감 때문인지 항상 잠을 설친다. 오전 6시 2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임원 모두가 도착해 있었다.

이사장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용 떡과 휴대용 보온병을 받고, 협회에서 준비한 간식과 여행에 필요한 물품 등이 전달되었다.

임원 해외 워크숍은 올해로 4회째로 첫해보다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회원 모두는 준비된 절차대로 움직였고, 조용히 탑승 시간을 기다렸다. 탑승 후 1시간 40여 분만에 일본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마친 회원은 버스를 타고 교토로 이동하여 일식 고치소우 마을(ごちそう村)에서 점심을 먹었다.

교토지부 설립 10주년 행사장은 일본 교토 길전산 경내(京都 吉田山 吉田神社境内)에서 진행되었

다. 협회 임원이 도착했을 때는 교토지부 회원들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가루차 행다례를 시연하고 있었다. 협회 임원 등이 자리에 착석한 다음 본격적인 시연 행사가 펼쳐졌다.

우리 협회 윤라영(주인), 허유진(돕는이) 전문사범과 일본 회원 3명이 조합을 이룬 규방다례 공연팀이 소개되면서 일본의 현지 차인과 협회 임원은 큰 박수로 기운을 북돋았다. 주인이 손님들 마중하면서 시작된 규방다례 시연은 30분 내내 일본차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일본 차인들은 규방다례 시연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주인과 돕는이의 손동작 몸동작 하나라도 더 카메라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 차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차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2026. 04. 05.



2026. 04. 05.



최소연 이사장 교토지부 전원한테 선물증정

주인으로 시연에 참석한 서울제2지부 윤라영 전문사범과 허유진 전문사범은 낮은 환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시연해 국내외 차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규방다례 시연이 끝난 후 교토지부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간략하게 열렸다. 조화미 지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교토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최소연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앞으로도 협회와 교토지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한일 차문화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2026. 04. 05



“협회의 자랑
교토지부가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협회는 교토지부 개설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임원 34명이 참석하여 조화미 교토지부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조화미 교토지부장은 “한국에서 협회 임원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교토지부 발전을 위해 최소연 이사장님과 협회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교토지부 개설 10주년 축하 금일봉과 서울에서 준비해 간 선물을 전달했고, 박광옥 부회장은 임원 등이 모금한 금일봉과 다식을 전달했다. 조화미 지부장은 답례로 임원 모두에게 ‘호지차’를 선물했다. 일본측 차인들의 축하 후에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 축사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교토지부는 1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



릴 기회를 얻었으니 앞으로도 교토지부가 한국 일본 차문화의 발전과 우호적인 교류에 기여하며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규방다례 시연팀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및 일본 회원들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마무리했다.

습니다. 2016년부터 교토 요시다야마 대차회(京都 吉田山 大茶会)가 개최될 때마다 부스를 열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우지차박@산업 국제교류(宇治茶博@産業・国際交流)에 참가하여 규방다례, 생활다례, 선비다례를 시연하였으며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교토고쇼 슈스이테이(京都御所 拾翠亭-교토어소 습취정) 봄차회, 도쿄 텐엔초후(東京 田園調布) 콜라보 차회, 시즈오카 핫타산 송에이지(法多山 尊永寺) 한국 찾자리, 효고현 다카라즈카(兵庫県 宝塚) 신년회, 그리고 최근에는 우라센케 류에르 샤야나가 일호회와 함께 한일교류다도회 등 교토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곳에서 다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토 국제학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차문화 교실, 노트르담 여자 대학에서 한국차문화 강좌, 시가현 민단 한일문화교실 등 차문화 교육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 다도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차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다고 감상문을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사하게도 교토에서 한국의 차문화를 널리 알



2일차

우리 차와 일본 차의 비교



벚꽃이 만개한 천년의 도시 교토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온야도노노 교토 시치조 호텔에서 온천과 휴식을 취한 임원들은 2일차에는 이시테라초 유명 차 생산지인 일본 문화유산 중 하나인 '천공의 차밭'을 탐방했다. 교토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시테라초 '천공의 차밭'은 우리 차의 본 고장인 보성이나 하동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가파른 곳에 펼쳐진 차밭은 심해의 바다처럼 산등성을 타고 아름답게 물결쳤다.

'천공의 차밭'으로 오르는 구간은 벚꽃이 만개하여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차밭으로 발길을 옮겼다. 벚꽃과 어울린 다양한 야생화와 길가에 펼쳐진 차나무의 찻잎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찻잎과 비교하고, 맛을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차와 일본 찻잎을 비교하면

서 아름답게 펼쳐진 '천공이 차밭'에 도착해 보니, 그야말로 차나무로 장관이었다. 산등성으로 끝없이 펼쳐진 차나무가 물결치듯 펼쳐져 있고, 산 정상에는 차를 이용한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차를 판매하기도 하고, 차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원들은 녹차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으로 달콤함과 멋진 추억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후에는 교토 남쪽에 있는 우지시로 이동했다. 헤이안 시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지 보도인(평등원)을 관광하고 주변에 펼쳐진 다양한 가게에서 차 시음과 차를 구매를 했다. 우리 차와 일본 우지 차를 비교하는 시간은 차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





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저녁에는 최소연 이사장님과 임원 간 다담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차를 시음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담 시간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 협회에서 어렵기만 했던 이사장님과 직접 대화 시간을 가진 지부장과 이사들은 한결같이 '이사장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사장님의 깊은 뜻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다담 시간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대화의 꽃을 피웠다. 또한 앞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임원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3일차

임제종의 대본산에서 차문화 부흥을 다짐하다



2026. 04. 07.



2026. 04. 07.



함께 하는 여행은 하나가 되는 여행이다. 차라는 매개체로 만난 차인들은 삶의 동반자이자 함께 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들이다. 우리 협회 임원들은 남선사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다.

남선사는 임제종의 대본산으로 9세기 중국 당나라의 임제의현(臨濟義玄)에 의해 창시된 중국 불교 선종 5가(家)의 한 종파이다. 임제의현이 만든 종파라고 하여 임제종이다. 한국으로 전파되어 신라 시대 때 구산선문,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 임제종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협회 임원은 3일차 일본 임제종의 대본산인 남선사를 찾았다. 남선사는 한적하면서도 넓은 정원과 향내가 경내에 진동했다. 남선사를 둘러보는 임원들은 '나'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 이곳의 특징은 중세 때 최고로 여겨진 5개 임제종 사원보다 걸출하

다 하여 오산지상(五山之上)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당시 가장 뛰어난 선승들이 역대 주지 스님으로 거주하면서 오산 문학의 중심지로 번창했다고 하며, 현재 건물은 에도시대(1603~1868)초기에 재건되었다. 경내 곳곳에는 잘 다듬어 진 정원과 옛 유적이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오후에는 일본식 유부두 정식을 먹은 후 '달이 건넌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도게츠교 다리를 산책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게츠교 다리를 오가며, 일본의 풍경을 구경했다. 모처럼의 자유시간으로 주변의 상품 가게에서 차도와 차를 구입하는 회원들과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회원들이 여독을 풀었다.



2026. 04. 07.



2026. 04. 07.

4일차

일본에 한국의 차문화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워크숍 마지막 날은 일본 3대 성 중 가장 규모가 큰 오사카 성(大阪 城)을 관람했다. 오사카 성이 있는 정문에서부터 정체가 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벚꽃이 만개한 오사카 성은 멀리서 보기에 웅장했다. 정문을 통과하여 오사카 성까지 가는 길에는 벚꽃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 같아 참으로 신비로웠다. 오사카 성은 오사카시 주오구에 있는 성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주했던 성을 재현한 건축물로 일본의 성 중에서도 가장 큰 편이다. 오사카 성의 전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오사카 성이 에도 막부에 의해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히메지 성, 구마모토 성과 함께, '일본 3대 명성(名城)' 중 하나로도 꼽힌다. 협회 임원 등은 벚길을 걸으며, 지나온 일과 앞으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을 가졌다. 특히 협회의 발전과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에 대해서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협회 임원 등은 오사카 성을 둘러보면서 차향이 온누리에 넘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차문화가 이곳 일본에서도 꽃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사카 성을 관람했다. 이번 임원 해외 워크숍은 교토지부 개설 10주년이라는 행사에 맞춰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컸으며, 해외에서 임원과 이사장과의 다담 시간은 참으로 유익했다. 협회의 글로벌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신진 차인들의 유입이 절실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세대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차문화의 부흥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면서 다음 워크숍을 기약했다. ☺



제24기 한국차문화대학원 개강

반장선거와
자치회 구성으로 출발

협회는 지난 2026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관에서 제24기 대학원 개강식을 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차문화대학원 개강을 축하해 주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된다



2026. 03. 07.



최소연 이사장 인사말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부 회원과 전 기수인 제23기 회원 등이 대학원 개강식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준비했다.

오전 11시 최소연 이사장과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선고차인에 대한 묵념, 국기에 경례, 최소연 이사장의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축사에서 “신입생 여러분! 차문화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차를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 혹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공감과 소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

다. 차예절에서는 두 손으로 차를 드리고, 두 손으로 받습니다. 또한 손님이 먼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야 주인도 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입니다.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례(茶禮)는 본질적으로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기준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라고 말했다.

제24기 대학원 개강식을 마친 신입생과 협회 임원 등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제24기 자치회 회장단 투표가 있었다. 회장 선거에서 전북지부 이영서 사범이 당선되었다.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대학원 선거보다 치열했다. 이번 대학원 회장으로 당선된 이영서 사범은 동생과 함께 등록하여 자매의 끈끈한 정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대학원 자치회 임원선거가 끝난 후 박광옥 무형유산 규방다례 전승교육사의 ‘한국의 차문화 -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일대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박



2026. 03. 07.



2026. 03. 07.

광옥 전승교육사는 '인설 이귀례 이사장님께서 규방다례를 정립하는 과정과 행다법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규방다례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오후 시간에는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인 최소연 이사장님과 이수자들이 신입생들에게 배례에 대해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학원생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의 규방다례를 하나하나 익혀갔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2026. 03. 07.



2026. 03. 07.



2026. 03. 07.



2026. 03. 07.



2026. 03. 07.



2026. 03. 07.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 인천항과 개항장 거리

인천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1883년 제물포항을 개항하여 세계와 연결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등장해 1년에 1억 명 이상의 여객이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는 개항과 관련된 근대 문화유산이 많다. 제37회 전국 차인큰잔치가 열리는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시작하여 인천항, 월미도, 개항장 거리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근대를 여행해 보자.



지금까지의 관광지를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아래의 QR코드를 비추고 나타나는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인천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 여행은 인천이지
개항의 숨결을 따라가는 역사문화 교육 여행



더 다양한 인천 관광지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아래의 QR코드를 비추고 나타나는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인천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 여행은 인천이지
인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다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1. 인천 상상플랫폼

이곳은 1978년 인천항 내항 제8 부두에 건설된 초대형 곡물창고로 2016년까지 38년 동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옥수수, 밀 등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1년 내내 5만 톤이 넘는 곡물을 보관하며 전국 각지로 보냈다. 인천항에 남항, 북항, 신항 등 항만이 새로 건설되면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 예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을 갖춘 복합문화관광공간이 되었다. 철강, 자동차, 곡물 등 대한민국의 물류기지인 인천항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4층의 '스토리지 인천'에 앉으면 차와 식사를 하면서 인천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도 볼 수 있다.



상상플랫폼 과거(인천시 제공)



상상플랫폼 현재



상상 플랫폼 외부



상상플랫폼 내부

2. 월미바다열차

바다와 인천항을 보면서 월미도를 한 바퀴 둘러 볼 수 있는 모노레일이며, 2019년 운행을 시작하였다. 인천역 바로 옆에 월미바다역에서 시작하여 월미공원역 - 월미문화의거리역 - 박물관역 - 월미공원역을 다시 거쳐 월미바다역으로 돌아온다. 중간에 1번 내렸다 다시 승차하는 것이 허용되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만 운행한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운행할 때마다 동승해서 인천항과 월미도에 대한 역사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함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이드를 동반하고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계 최대 벽화라는 사일로 벽화는 무엇인지, 한국 최초의 등대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곳은 어디인지, 인천과 하와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근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주말에는 반드시 예약해야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월미도에는 소쇄원, 부용정 등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전통정원, 대관람차와 디스코광광



월미 바다열차



월미바다역



월미한국전통정원(월미공원)



월미바다열차에서 본 서해의 운슬



차이나타운(패루)



삼국지 벽화거리

으로 유명한 놀이동산, 음식거리, 국립해양박물관과 이민사 박물관, 월미산 전망대 등 꼬박 하루가 필요할 만큼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3. 차이나타운

월미바다역과 인천역 앞에 한국에서 유일한 차이나타운이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개항 이후 1884년 4월 청나라 영사관이 설치되고 이 지역이 청나라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국인이 대규모로 이주하여 형성되었다.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표인 짜장면부터 월병, 만두, 공갈빵 등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된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다. 개항장을 여행한다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번은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짜장면 박물관에서는 음식과 이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삼국지 벽화거리, 황제의 계단, 한중문화관, 한중원(중국식 정원), 의선당(중국식 사원) 등이 있다. 차이나타운의 경계를 알 수 있는 4개의 패루(중국식 대문)가 동서남북에 있다.

4. 개항장 거리

차이나타운이 끝나는 지점에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이 있고 그 옆은 '개항장 거리'라고 불리는 일본 조계지 거리가 남아 있다. 이곳이 개항장 거리인 이유는 차이나타운보다 7개월 먼저 1883년 9월 일본인 조계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항구

가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가장 좋은 위치에 차이 나타운(5천여 평)보다 넓은 약 7천여 평의 땅을 조 계지로 받았다. 개항장 거리에는 현재 개항박물관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제1 은행 건물, 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제18 은행 건물, 중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일본 인천 부 청사 건물, 1888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서 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근대 생활사 전시관 등 목 조와 돌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이 거리를 형성하 고 있다.

중구청 뒤로는 청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의 조계지로 가는 '각국 조계지 계단'이 남아 있고 그 위에 '제물포 구락부'가 있다. 제물포 구락부는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친목을 도모하던 사교 클럽으로 1901년 2층 벽돌

건물로 지어졌다. 제물포 구락부는 유명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이다.

그리고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자 유공원과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 동상 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인천시장의 관사로 사용하던 한옥 인천 시민애집, 1883 개항살롱 등 근대라는 격동기를 넘어가기 위해 애썼던 한국인의 모습이 남아 있는 장소가 많다.

6월과 9월에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축제가 열리며 개항기 의상을 입고 근대의 분위기 속에서 밤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청나라와 일본의 조계지를 구분하던 경계)



개항장 거리



인천 시민애집



답동 성당



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



가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 내부

5. 교회와 의료

인천이 개항장이었던 만큼 이곳을 통해서 한국 교 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천주교 답동 성당, 성공 회 내동 교회, 감리교 내리 교회가 1885년~1891년 사이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에 의 해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 선교사들이 도착하기도 전인 1700년대, 새로운 지식에 호기심이 많았던 실학자들이 천주 교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1784년에는 한국인 으로서는 최초로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 으며, 1845년에는 김대건이 신부로 서품되었다. 개항 이전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1791년 신해박해 에서 시작하여 1866년 병인박해까지 여러 번 있었 으나, 1886년 한불수호조약 이후 종교활동이 묵인 되었다.

선교사들은 보육원과 같은 복지, 교육, 의료 활동 을 활발히 했으므로 인근에 그 역사를 이어받은 학교와 병원이 남아 있다. 답동성당에는 천주교 역사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을 대표하는 길병원의 시작이 된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도 답동 성당 근처에 길한 방병원과 함께 있다.

1958년 당시의 병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 람을 실물과 똑같이 재현해 놓아 관람객 중 어린 이들은 실제로 착각할 정도이다. 의사 체험을 하 고 개념 촬영을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후는 한국차문화협회가 위치한 다른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스승의 날 행사

2026년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 차문화계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아 온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을 추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스승의 가르침과 헌신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소연 이사장 헌다



문차남, 연규남 이사 헌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5일 분당 메모리얼파크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묘소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따뜻한 여름이 찾아온 듯 서울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가운데 진행된 스승의 날 기념식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규방다례 이수자, 각 지역 지부장, 이사, 회원 등이 참석하여 큰 스승이신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추모했다.

오전 11시 분당 메모리얼파크에서 진행된 ‘스승의 날’ 기념식에는 협회 박광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아침 일찍 협회 임원 및 회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멀리 지방에서도 이수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6. 05. 15.



부회장단 헌다



이수자 헌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최소연 이사장의 헌다, 문차남 연규남 이사의 헌화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협회 부회장단, 규방다례 이수자, 각지부 지부장, 임원, 회원 순으로 헌다를 했다.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차계(茶界)의 큰 스승으로 우리 차문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큰 어른이시다. 특히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명예이사장님께서 손수 다듬은 교육체계로 현재도 이어오고 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이렇게 화창한 날 명예이사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나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차문화의 큰 거목이시고, 우리 차문화를 반석 위에 올려 놓으신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뵈고, 가슴에 꽃 한 송이를 달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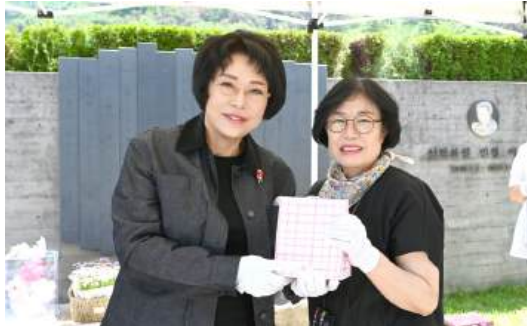
이수자 일동 선물증정



서울제1지부 최진숙 지부장 선물



원종혜 이사를 대신하여 최지원 지부장 다식선물 전달



연규남 이사 선물

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이사장님을 보기 위해 와 주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 믿습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스승의 은혜 노래가 메모리얼 파크에 울려 퍼졌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마치고 이수자 일동이 준비한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이수자 일동을 대표하여 박광옥 부회장이 최소연 이사장님께 선물 증정식을 비롯하여, 서울제1지부 최진숙 지부장의 선물, 연규남 이사의 선물, 원종혜 이사의 선물을 최지원 인천지부장이 대신 전달한 선물 증정식이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더 없이 화창한 날씨해 스승의 날 추모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 회원들이 준비한 점심을 함께 하며, 큰 스승이었던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추

모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찰밥과 새우탕, 꽃바구니 등을 준비해 주었다. 인천지부에서는 과일바구니, 서울제1지부에서는 떡, 강정자 부회장 - 망고, 강순란 부회장 - 햇녹차, 최성미 진수장학생 - 수박, 연규남 이사 - 풍선꽃바구니, 최지원 인천지부장 - 김치, 멸치볶음, 장효순 이사 - 마들렌, 송향숙 이사 - 떡, 류소영 이사 - 케익, 신연서 이사 - 각종 나물과 메밀전 등, 이기분 이사 - 김치점, 갯잎, 오이소박이, 김태임 아산지부장과 문차남 서울제2지부 이사가 각각 꽃바구니, 이막동 이사 - 김치, 나물, 이림 부회장-10만 원을 지원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큰 스승이신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그리는 스승의 날이었다. ☺



회원 일동



직원 일동



2026. 05. 15.



문학 박사 / 강원지부장
김미숙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3)

고려 팔관회의 축제 분위기

고려시대의 팔관회는 단순한 국가 의례를 넘어, 왕실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거대한 문화 축제였다. 팔관회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토속 신앙과 민간 의례를 포용한 융합적 행사였다는 점에서 고려 사회의 정신적 풍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다. 특히 이 의식은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기능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팔관회는 궁중의 엄숙한 제례와 함께 음악, 무용, 연회가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였다. 왕과 신하, 승려, 백성이 같은 공간에서 의례를 공유했다는 점은 당시 사회가 지닌 공동체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의례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확인하고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공적 장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팔관회는 고려시대 9가지 속절(俗節: 명절날)의 하나였다. 고려시대 속절에는 元正(원정: 설날)·상원(上元: 정월대보름)·한식(寒食: 上巳: 음력 3월 3일),



사진1.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경주박물관: 이미지 시 생성 '팔관회 재현 상상도'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례를 올린다(조하:朝賀).”는 표현 대신 “문안 인사를 올린다(기거:起居).”고 한 것은 이미 사회의 좌전수하 때 신료들의 하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56 午[음력 5월 5일]·중구(重九:음력 9월 9일)·동지·팔관(冬至·八關:음력 11월 15일)·추석(秋夕:음력 8월 15일) 등 아홉 가지가 있다.²⁾

이러한 속절에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낸 후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팔관회의 분위기를 발랄하게 묘사한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정기는 펄럭이고 북소리는 둥둥	旌旗邐邐鼓逢逢
호종하는 선관들은 만종의 녹을 누린다.	扈從仙官祿萬鐘
예악은 한창인데 임금은 희열에 젖어있고	禮樂未終天有喜
어느새 송악의 소나무엔 백설만 쌓였다.	須臾雪滿鵲峯松

이 시는 척약재 김구용(1338~1384)이 공민왕 18년(1369)의 ‘팔관대회’를 보고 그 소감을 읊은 것이다.³⁾ 펄럭이는 깃발과 요란한 북소리에 어울린 갖가지 악무와 잡희들로 어우러진 팔관회의 장을 재기발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왕을 호종하는 관리를 ‘선관(仙官)’에 비유하였고 온갖 의식이 벌어지는 구정[격구를 하는 대궐의 크고 넓은 마당]에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공민왕(1330~1374)의 용안을 선연하게 묘사한 후 갑자기 내린 서설이 송악산 소나무에 수북이 쌓였다, 라고 마무리하였다. ‘예악은 한창인데 임금은 희열



사진2.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

1) 卷84志38刑法1公式 官吏給暇, “八關【十一月十五日 前後并三日】.”
2) 高麗史卷84志38刑法1名例 禁刑, “俗節【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
3) 金九容, 『楊若齋集』 卷上, “己酉年八關大會.”

에 젖어있고'라는 대목에서 팔관회 대회일에 곡이 연주되고 행사가 축제 형식으로 흥겹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팔관회의 축제적 성격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각적 즐거움과 정신적 수행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향과 음악, 의식의 장엄함은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집단적 명상 상태를 유도했으며,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의례 문화는 단순함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장치였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 의례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형식의 재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다. 팔관회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치유되는 구조를 지녔다. 이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집단적 연대와 정서적 회복의 모델로 읽을 수 있다.

의례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고려 팔관회의 축제성은 인간이 본래 지닌 놀이와 수행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우리는 문화가 어떻게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철학이다. 한 모금의 온기는 순간을 붙잡고, 흩어진 의식을 다시 몸 안으로 불러들인다. 팔관회가 남긴 유산은 의례의 형식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법에 대한 통찰이다. 인간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으며, 고요 또한 나눌 때 깊어진다.

봄이라는 계절은 이 오래된 진실을 다시 상기시킨다. 모든 의례는 결국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다. 우리는 천 년 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치유되기를 원한다. 차 한 잔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순간, 팔관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경험으로 되살아난다.

[천 년의 숨결, 찻잔에 머물다]

천 년의 북소리는 멀어졌지만
찻잔 위에 남은 온기는 아직 따뜻하다.
함께 웃고, 함께 숨 고르던 사람들의 기운이
봄빛처럼 오늘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의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름을 바꾸어
우리의 작은 식탁과 고요한 손끝에 머물렀다.
한 모금의 차가 지나가는 동안
시간은 잠시 우리를 기다려 준다.
그 틈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기억한다.
그리고 봄은,
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

TIP 일상에서 만나는 나만의 팔관회: 5분 차 명상법

바쁜 하루 속 잠시 멈춤이 필요할 때, 고려인이 팔관회에서 찾았던 평안을 우리 집 찻자리에서도 느껴보세요.

준비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그 과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호흡 눈을 부드럽게 감고, 차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 마쉬고 내쉽니다.

향기 찻잔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차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맛과 느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맛과 온기가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차에 집중합니다.

마무리 5분 후,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경남지부장
황미경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사람(2)

하푸탈레에서는 립톤 시트

립톤 시트와 1890년 설립된 담바텐 티 팩토리를 찾았다. 일출 무렵 능선 위에 서면 차밭은 하나의 거대한 풍경화가 된다. 이곳에서 차는 산업이면서 동시에 삶이고 풍경이다. 차를 만든다는 것은 곧 풍경과 시간을 함께 마시는 일임을 실감했다.

유명한 립톤사의 엑스트라 퀄리티의 연두색 포장은 누와라 엘리아를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생산되는 홍차 대부분은 BOP 급이며, 타닌 성분이 적어 발효가 덜 된 찻잎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리는 인도 다즐링에 빗대 실론티 홍차의 샴페인이라 부르는데 이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이 실론티 홍차의 제왕이라는 뜻이다. 스리랑카 다른 산지에 비해 다즐링 품종의 재배 비율이 높다.

브랜드 딜마, 차에 철학을 담다

딜마(Dilmah)는 1988년 메릴 J. 페레라에 의해 설립된 스리랑카 최초의 싱글 오리진 티 브랜드다. 재배부터 가공·유통까지 직접 관리하는 수직 통합 구조, 그리고 노동자 복지와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딜마를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차 철학’으로 만든다.

딜마 홍차는 생산지에서 직접 배합한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국내 다원에서 재배한 찻잎을 현지 공장에서 가공에서 포장까지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

스리랑카의 홍차는
맛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한 잔에 담긴 사람과
삶의 무게까지
함께 전해진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홍차 앞에서
겸손해진다.

서 수확에서 상품화까지 최단기간에 이루어져 신선한 맛 그대로의 찻잎을 포장할 수 있다. 찻잎은 재배되는 지역의 표고에 따라 수색 맛이 틀린 개성을 갖고 있기에, 딜마는 그 개성을 최대한 홍차 맛에 살리기 위하여 고산지, 중산지, 저산지 마다 담당 티 감별사가 배치하여 관리하였다. 이것이 딜마의 와테 시리즈(The Wattle series)이다. 숙련되고 뛰어난 딜마의 프로 티 감별사들이 매년 5천여 가지 이상의 틀린 맛의 실론티 홍차를 맛보기 하여 원료로 하기에 안정된 딜마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론티 한 잔에 담긴 사람들

이 아름다운 풍경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 스리랑카는 세계 2위의 차 수출국이지만 이 찬란한 산업의 이면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의 삶이 있다. 대부분 노동자는 식민지 시절 이주해 온 말라야 타밀 공동체다.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교육과 복지의 부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세계적인 홍차 브랜드와 화려한 패키지 뒤에는 여전히 손으로 찻잎을 따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그 차를 만든 사람의 시간을 함께 마시는 일일지도 모른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역사와 자연, 사람의 삶이 한 잔에 담긴 문화다.

스리랑카에서 마신 홍차 한 잔은 나에게 묻는다.

이 차를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차는 풍경이자 질문이다. 스리랑카 홍차 여행은 단순한 미식이나 관광이 아닌 차는 역사이며 산업이며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순간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실론티 한 잔은 산지의 개간, 차나무 식재와 관리, 고원지대의 안개, 느린 기차, 찻잎을 따는 여인의 손, 제다 공장 인부들의 노동,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다.

스리랑카의 홍차는 맛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한 잔에 담긴 사람과 삶의 무게까지 함께 전해진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홍차 앞에서 겸손해진다. 그 힘은 ‘오리지널’에서 나온다. 차가 태어나고, 자라고, 만들어지는 땅에서 마시는 한 잔이기 때문이다. 차를 안다는 것은 맛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차가 자라온 땅과 사람을 함께 기억하는 일이다. 스리랑카의 홍차 로드는 그 사실을 조용히,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본 글은 전호에 이어 2회에 걸쳐 실립니다.>



차 산업과 시장의 현황, 발전 방향(2)

인천지부 이사 원종혜

02. 본문

공차로 시작한 해외 밀크티 브랜드들도 국내에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2012년 국내에 진출한 공차는 현재 9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국내에 흑당 밀크티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2년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한 Heytea(喜茶)는 2024년 강남 압구정에 국내 1호점을 개점한 후, 1년 동안 7개로 매장을 늘렸고,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에도 매장을 열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티가 아닌 차 본연의 맛에 집중하고 크림치즈, 과일 등을 더해 비주얼까지 갖추어 젊은 세대에겐 인기가 많다. 고객이 당도, 온도, 토픽 등 7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차의 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바일을 통해 주문 시간을 지정하는 디지털 전략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음료를 제공한다. Heytea는 5년 만에 2,000여 개의 매장을 내고 중국 내에서 스타벅스보다 매장 수가 많아졌다. 중국에서 가장 큰 밀크티 회사인 차백도(茶百道, ChaPanda)도 2024년 강남 도곡동에 국내 1호점을 개점한 후 1년 동안 매장을 7개로 늘렸다. 차백도는 중국 내에 매장을 8,000여 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3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024년 홍콩 증시에도 상장했다. 한국 내에서 50여 개의 매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국, 호주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기업도 티 하우스를 늘려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자회사인 오설록은 2024년 6월 제주에 700억 원을 투자해 오설록 티 팩토리를 준공했다.(그림 1) 녹차 재배-가공-제품 출하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차의



〈그림 1〉 오설록 티 팩토리 투어 전경



〈그림 2〉 알디프 티 패키지

생산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산시설을 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주목된다.¹⁾ 그리고 제주 티 뮤지엄과 함께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2개(프리미엄, 컨템포러리), 북촌, 한남, 국립현대미술관, 해운대, 김포공항에 티 하우스를 열었다. 면세점과 백화점을 포함해 21개의 티 샵도 운영하고 있다. 오설록은 예약제로 제주에서 프리미엄 티 코스(80분, 6만원), 북촌에서 티 클래스(90분, 5만원)를 운영하고 본사 티 하우스에서는 애프터 티 세트(120분, 2인 89,000원)를 판매하며, 바닐라 허니 블랙티 등 다양한 블렌딩 티도 출시하고 있다. 오설록의 2023년 매출은 약 840억 원이다.

2016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알디프는 티 코스라는 것을 개발하여 다양한 블렌딩 티를 계절마다 다른 스토리와 함께 제공한다.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차문화를 선보이고 티 &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시간 동안 5가지의 블렌딩 티를 전채요리-메인요리-후식과 같은 개념의 코스로 제공하는데, 티 제품, 코스음료, 스토리텔링의 연계로 브랜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150여 종의 레시피를 개발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기호 데이터 및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기업의 이름을 예술(Art), 인생(Life), 차(Tea), 존엄성(Dignity), 다양성(Diversity), 자유(Freedom)를 조합하여 만들었다는 알디프(ALTDIF)는 화려한 도시의 맛 '샹들리에', 루이보스에 베리류를 블렌딩한 티에는 '나랑 갈래?'와 같이 이름을 붙여 이름만 들어도 맛과 향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블렌딩 차는 순수한 차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음료를 즐겼던 사람들도 쉽게 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²⁾

알디프의 강남 도산 티 바는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20대 고객의 탄탄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다. 티 제품 및 티 코스 매출액은 최근 몇 년간 600% 이상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티 제품 패키지가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³⁾ (그림2) 또한 세계 식음료 대회인 국제 미각 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수상하면서 벤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스페이

1) 서울신문, 투명창으로 제조과정 한 눈에, 2024.6.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95364> 차시장 글로벌 보고서 2024,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tea-global-market-report>

2) STARTUP TODAY, 차(茶) 스타트업 알디프는 어떻게 MZ세대 여성들을 사로잡았나?, 2021.11.10.

3)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3307>

스 오디티'는 다양하게 색이 변하는 무카페인 티로 SNS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알디프 티 바의 재방문율은 40%에 달한다.

알디프와 같이 고급 차와 디저트를 코스로 제공하고 티 소믈리에가 설명을 해주는 티 오마카세도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차 시장으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고 있다. 티 오마카세는 전문 지식을 가진 티 소믈리에가 손님의 취향에 맞는 차를 추천하고 우려 주는데, 코스마다 다양한 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차의 맛과 향에 어울리는 디저트까지 함께 제공한다. 장소를 예술적으로 꾸며 음악이나 미술과 함께 찻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마카세(おまかせ)는 사물의 판단이나 처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공손하게 표현하는 일본어로 고급 음식점에서 메뉴의 구성을 셰프에게 일임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오마카세의 특성상 티 오마카세는 고객에게 맞춘 개별적인 차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티 오마카세 매장의 하나인 '코코시에나'에서는 티 소믈리에가 중국, 대만, 인도 등지에서 엄선한 차를 각각의 차의 특성에 맞게 우려내고 어울리는 다식을 제공한다. 1년에 4번 계절에 맞게 티 코스를 변경하고 윈데이 티 클래스도 운영하여 쉽고 편하게 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명동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는 라운지 & 바에서 2023년 9월 '좋은 삶을 음미하다'라는 주제로 티 오마카세 상품 아트 드 티(Art de Tea)를 1인 58,000원에 출시했는데, 한달치 예약 마감되었다. 정산소중 웰컴 티로 시작하여 백호은침, 서호용정 등 최고급 차와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블렌딩 티로 이어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애프터눈 티의

유행으로 다수의 5성급 호텔이 2인 기준 10만원 선에서 티 세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르 메르디앙의 티 오마카세는 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차를 설명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티 오마카세는 대개 1~2시간의 코스에 1인 3~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티퍼런스(종로,강남), 맥파이 앤 타이거(신사), 갤러리 더스퀘어(북촌), 오므오토(서울숲) 등이 티 오마카세로서 주목받고 있다. 차를 힐링 프로그램의 하



〈그림 3〉 호텔 르 메르디앙 명동 Art de Tea



〈그림 8〉 한국 일본 숙박업소의 다도 프로그램 사례

나로서 숙박객에게 제공하는 호텔도 등장했다. 제주의 취다선 리조트는 여러 개의 개별 티룸을 마련하고 투숙객 중 신청자에게 티 클래스를 제공한다. 잎차의 기본 상식과 다기 사용법을 알려 주고 차와 다식, 명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도 고성 of '서로제'는 체크인을 다실에서 진행한다. 객실마다 다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강고운 작가의 다기와 지유명차, 보이차, 블렌딩 티 등을 비치했으며 차를 제외한 다른 음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객실의 분위기에 따라 색이나 모양이 모두 다른 다기와 차가 제공된다. 일본은 셰라톤 미야코 오사카 호텔이나 호시노 리조트 카이 다마쓰쿠리, 호텔 세이류쿄토 등 유명 호텔에 다실이 마련되어 있거나 차노유(茶の湯)라 하여 다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텔들이 다수 있고, 자체 브랜드의 차와 다기를 판매하는 호텔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벤트성 행사로 간혹 티 클래스가 열릴 뿐 숙박업소에서 차를 제대로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03. 맺음말

아편전쟁, 보스턴 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차는 인류의 역사상 중요한 소비품이자 교역품으로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상품이었다. 커피나 탄산음료 등의 등장으로 주춤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 등의 영향으로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를 소비하는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차를 소비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마니아층이 차를 즐기거나 고가의 유명 해외 브랜드 차를 고급문화로 소비하거나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일상적으로

차를 즐기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그만큼 국내 차 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커피를 비롯하여 해외 유명 차 브랜드들이 국내에 티 하우스나 매장을 열고 있고, 차 마니아를 위한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 식음료 업체에서도 티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다양한 블렌딩 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차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액상차(RTD)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차와 디지털을 코스로 즐기는 티 하우스나 티 살롱, 티 바 등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SNS에 회자되고 있으며, 티 클래스와 투어 등 다양하게 차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우리의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고 차를 즐기고 창의적으로 다룰 줄 아는 차 인구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차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소규모 다원 위주인 국내 다원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왕실 차의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브랜드와 견주어 한국 차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함께 차 소비량이 많은 일본도 인구의 감소와 함께 차 소비량이 줄어 들고 더하여 생산자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 의욕이 감소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차 생산, 유통업체인 이토엔(伊藤園)에서는 '차 산지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의 고용 유지와 차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안전하고 고품질인 녹차의 조달과 일본 농업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차 문화의 계승이나 발전은 자국산 차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청년사관학교를 통해 차 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알디프, 시그네이처 아시아, 연향이 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최근 젊은 세대가 베리에이션 티를 즐기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차와 함께 하는 일상 티 & 라이프, 차와 함께 하는 새로운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여 차를 개인의 일상 속에 가까이 둘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일본의 (주)greenbrewing에서는 '차가 있는 생활'이라는 콘셉트로 2019년 5월부터 차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산 싱글 오리진 차를 매월 3종류씩(4g×3) 선정하여 차에 대한 설명, 레시피, 다원과 생산자 등 각종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Tokyo Tea Journal의 매월 구독료는 8,000원대(우송료 포함)이며 구독을 유지하는 비율은 95% 달한다. 이들은 도쿄에서 일본산 싱글 오리진 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센차도 도쿄(煎茶堂東京, <https://shop.senchado.jp/>)와 핸드드립 일본차 전문점 도쿄사료(東京茶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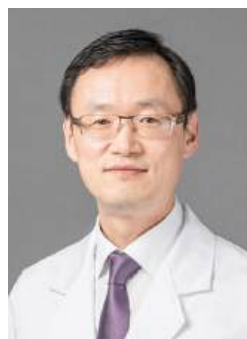
<https://www.tokyosaryo.jp/>)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다방면의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과 소통하면서 일본차의 뿌리를 탐구하고 생산자와 고객을 연결하여 우수한 일본차의 생산자가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에게는 일본 전역의 차를 생산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맛보는 듯한 경험과 차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다도와 페트병 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차'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오사와로호(大佐和老舗)는 도쿄에서 'Your Blend'라는 자신만을 위한 차를 블렌딩하는 서비스(<https://www.myblendtea.com/c/yourblend>)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전문가(茶師)에게 좋아하는 차의 맛, 마시고 싶은 때, 마시는 방식 등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는 상담시 고객에게 들은 것을 이미지화하여 차를 블렌딩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시음한 후 고객이 좋거나 싫은 점, 더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완성하고, 차의 이름을 붙여 100g씩 포장한다. 이 서비스는 약 75분간 3,780엔의 비용으로 진행하는데,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며 각 예약 시간에 3명 이상의 고객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리프 아카데미(Leaf Academy)라 하여 '차 생활의 시작(ビギニング ティーライフ:beginning tea life)'과 같이 차 생활과 차에 대한 지식, 차 산업, 차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2시간 가량의 워크숍 형태의 수업도 여러 가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차 야간 학교, 팟캐스트(podcast) 수업 등까지도 운영하여 차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한다.

차문화는 5,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이제 다음 세대에 이 문화를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다행히 젊은 세대에게서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차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차를 단순하게 즐기는 것을 넘어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 티 오마카세에서는 진지하게 차를 배우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경'을 공부하는 16회 티 클래스를 개설했는데, 2-3번씩 반복 수강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한다. 다원이 하나도 없고 차를 전혀 재배하지 않는 싱가포르도 세계적인 차 브랜드를 갖고 있고 세계 차 무역국의 중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양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차 산업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이자 의례문화의 정수인 한국의 차문화를 새롭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전호에 이어 2회에 걸쳐 실립니다.>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켜야 뇌를 지킨다

원인부터 증상, 치료와 예방법까지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이영배 교수

과거에는 흔히 ‘중풍’이라고 불렸던 뇌졸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표적인 뇌혈관질환이다.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스트로크(stroke), 또는 CVA (Cerebrovascular Accident)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 활성화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보다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혈액을 통해 산소와 포도당을 지속해서 공급 받아야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뇌혈

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해당 부위의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팔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전신 증상이 아닌 국소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뉜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로 전체 뇌졸중의 약 76~85%를 차지한다. 흔히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질환이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다.

허혈성 뇌졸중은 다시 혈전성, 색전성, 열공성 뇌

경색으로 구분된다. 혈전성 뇌경색은 동맥경화로 혈관 안쪽에 지방과 찌꺼기가 쌓이고, 여기에 혈전(피떡)이 생겨 혈관이 점차 막히는 경우다.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이나 큰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형태다. 특히 심장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심장 검사가 함께 시행된다. 열공성 뇌경색은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형태로, 만성 고혈압이 주요 원인이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작은 혈관 벽이 약해지고 변성되면서 점차 혈관이 막히게 된다.

뇌졸중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갑자기’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 마비, 감각 저하,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장애 등이 있다.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는 경우도 흔하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증상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웃·손·발·시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옷어보았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안면마비를 의심해야 한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도 위험 신호다.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양쪽 눈동자가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우 역시 뇌졸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이에도 뇌세포 손상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다. 뇌혈류가 차단되면 중심부의 뇌세포는 빠르게 괴사하지

만, 그 주변에는 아직 회복 가능한 영역인 ‘허혈반음영’이 남아 있다. 이 부위를 얼마나 빨리 살려내느냐에 따라 환자의 후유증과 회복 정도가 달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면 1초마다 약 3만 2,000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당뇨병·고지혈증·심장질환·흡연·과음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혈압은 작은 혈관 손상을 일으켜 열공성 뇌경색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꾸준한 혈압 관리가 필수적이다.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며,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반복되는 두통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두통이 뇌졸중의 전조증상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구토와 의식저하를 동반한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갑작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두통은 뇌출혈 등 중증 뇌혈관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위험요인을 꾸준히 관리하고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며,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병원을 찾는다면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뇌졸중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다림보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茶茶茶

회원 글밭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차향 머문

성주 기천문화원에서의 하루

제다체험을 통해 차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이현정

실습장에 모여 본격적인 제다가 시작되자 뜨거운 솥의 열기 속에서 찻잎은 조금씩 다른 향으로 변해갔다. 처음의 풋풋하고 푸르던 향은 뉘음이 거듭될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깊어졌다. 회원들은 연신 손을 움직이며 잎의 숨이 죽는 순간을 느껴보려 애썼고, 누군가는 “차향이 살아난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잎의 숨이 죽고 은은한 향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제다의 섬세함과 정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직접 만든 차를 우려 함께 시음하는 시간은 매우 인상 깊었다. 같은 찻잎이라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향과 맛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의 깊은 세계를 새삼 체감하게 되

었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도 차 맛이 달라진다고 한다. “내가 만든 차가 가장 맛있다”라는 이사님 이야기에 다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차향에 흠뻑 취해 보였다. 제다 실습도 좋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으로 먹은 가마솥 토종닭 백숙과 가마솥삼겹살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성주 제다 실습은 단순히 녹차와 황차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다. 자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차향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소중한 하루였다. 이른 새벽 망원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긴 시간이 지나도 향기로운 기억으로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봄의 설렘을 덥다

연둣빛 설렘으로 문을 연 성주 기천문화원 제다 실습기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박은주



2026년 봄, 우리 서울제1지부 식구들은 경북 성주의 기천문화원에서 최정희 이사님의 세심한 가르침을 받으며 제다 실습의 첫발을 뗐습니다.

우리는 찻잎의 크기와 채엽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분류되는 차의 이치를 배우며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술에 찻잎이 닿으며 내는 '치익' 소리와 '타닥'거리는 경쾌한 울림은 제다의 서막을 알리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왔습니다. 찻잎의 세포막을 적절히 파괴하여 성분이 잘 우려나게 돕는 유념 과정, 그리고 건조와 덥음을 아홉 번 반복하는 '구증구포'의 정성 어린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노력



끝에 뚝은맛은 가시고 향은 더욱 깊고 부드러워진 '서우녹(녹차)'이 완성되었고, 한쪽에서는 은은한 민향 과정을 거친 '서우황(황차)'의 향기가 제다소를 포근하게 휘감았습니다.

점심으로는 찻잎과 미삼, 황기를 듬뿍 넣은 든든한 토종닭 백숙으로 기운을 돋웠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감동은 제다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천문화원 바로 위 후평1리 마을회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고고장구' 봉사활동이 열린다는 소식에 우리 서울제1지부 선생님들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고고장구 봉사단의 흥겨운 소리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어르신들의 흥을 돋워 드렸고, 마을회관은 이내 효와정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차를 만드는 마음이 곧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임을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봄을 기다렸던 간절함만큼이나 오늘 제다한 차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깊은 향과 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매일, 매일 선물 받은 하루라지만, 자연이 준 찻잎에 지부장님과 총무님의 헌신, 그리고 다우(茶友)들의 열정을 더해 이웃과 웃음꽃을 피운 오늘날만큼은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

교토지부 10주년 행사 규방다례를 공연하다

규방다례를 시연하면서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윤라영



일본 교토지부 개설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규방다례 시연을 일본 회원분들과 함께 시연하게 되었다.

서울제2지부 박광옥 부회장을 비롯하여 문차남 이사, 류소영 이사, 장효순 이사, 정순영 이사의 가르침 속에서 저와 허유진 총무와 호흡을 맞추어가며 열심히 연습했다.

큰 손님잔에 옥로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행사장은 조용했다. 우리 규방다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했다. 우리 협회를 이끌어주셨던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정신이 녹아있는 규방다례,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행다례의 시연이 일본의 전통 도시 교토에서 펼쳐졌다. 한국의 차문화가 10년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작은 씨앗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다시 그들을 만들어 우리네 일상 속에서 전통 차문화 정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니 참으로 뜻깊다는 생각이 든다. 그 멋이 그 향이 좋아 35년이 넘는 세월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차인들의 미소에 담아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일본 교토에서 한국의 차문화를 알리고, 나누고 계시는 교토지부장님과 회원분들의 노고가 참 귀하고 귀한 차문화에 녹아있었다. 10주년을 지나 20년 30년 오래도록 이어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본다.

벚꽃이 만발했던 4월의 교토에서 한국의 멋진 차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자부심에 지금도 절로 미소가 나온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차문화의 전통을 지켜내 주시는 우리 협회의 최소연 이사장님과 아름다리나무 박광옥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부의 지부장님, 임원분들과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



차와 다담 시간, 서울북부병원 호스피스병동 차봉사

글_서울제2지부 이사 장호순



오늘은 서울북부병원 호스피스봉사 가는 날 ‘차와 다담’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는 날이다.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미소가 지어졌다. 아주 오래전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알게 된 호스피스봉사.

그때는 젊었고 아픔도 고통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봉사로 나 아닌 남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 마냥 좋아했었다. 한 번, 두 번 봉사를 거듭하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어떤 날은 한없이 애처로웠고, 또 어떤 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으로 가슴이 아려왔다.

이제 생각하면 그 시절 막연했던 기억 속 일들이 암이란 병으로 아픔을 겪고 난 지금은, 내 삶인 듯 모든 게 다가온다. 인생의 마지막을 선고받고 들어오는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절대 가볍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서울북부병원은 따뜻했다. 우리를 반기며 이곳저곳을 안내하는 사회복지사의 미소가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와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차를 배우며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아닌가 생

각한다. 상대를 배려하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차를 통해 허전했던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서럽고 시린 가슴에 사랑의 차 한잔을 대접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차향으로 잠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다식을 만들 때도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렸다.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바깥세상과는 단절된 상태이니 힘이 없고, 세상이 그리울 거란 생각이 미치니 다식을 만들 때도 다식에 생기를 더하고 에너지를 모아 정성과 사랑을 더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



“차를 배우며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를 배려하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차를 통해 허전했던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서럽고 시린 가슴에 사랑의 차 한잔을 대접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성껏 준비했다.

다화 한 송이에도 생명이 있는 생화를 푸른 사철 잎으로 준비했다. 우리가 차와 다담 시간을 알리니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이 나오셔서 차와 다식을 드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거 생화야?’,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며 차와 다식에 관심을 보였다.

류소영 이사가 녹차를, 최지은 선생이 설국을 우려향을 맡아보시게 해 드렸더니, 향이 참 좋다 하시고, 빛깔이 곱다고 하시며 잠시나마 고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지나가던 한 분이 ‘나도 차 마셔도 돼요?’ 하며 물으

셨다. ‘그럼요. 앉으세요.’ 했더니. 지금 어머니를 병실에 입원시키러 왔다고 하셨다.

얼굴엔 만감이 교차하고 수심이...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차를 내어 드렸다. 차와 다식을 드시며 이야기를 잠시 하시고 일어나시며 고맙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봉사를 하는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다.

차를 통해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평안을 드릴 수 있어 행복했다. 우리의 ‘차와 다담’시간이 차향으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본다. ☕



송대의 차문화가 숨 쉬는 중국 항저우

서호용정차로 피로를 날려버리다

글_경남지부 사범 김경희



중국으로 떠난 이번 차(茶) 기행은 차가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 4월 초, 지인들과 함께 길을 나선 나는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차의 본고장으로 향한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상하이를 거쳐 오고 가는 여정의 중심에는 항저우가 있었다. 오래된 송나라 왕조의 숨결이 스며 있는 이 도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느껴졌다.

항저우가 사랑하는 두 가지 특산물은 차와 비단이다. 특히 항저우의 용정차(龍井茶)는 중국 10대 명차 중 으뜸이다. 서호용정차가 유명한 이유는 푸른 색상과 그윽한 향기, 아름다운 모양, 감미로운 맛 등의 4박자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좋은 용정차에서는 고소한 콩 볶는 냄새가 난다고 한다.

용정차는 녹차의 한 종류로 같은 녹차라도 찻잎을 건조하는 방식이나 토질, 기후에 따라 차 맛이 달라지며 중국에는 200여 가지의 녹차가 있다고 한다. 용정차는 찻잎을 따면 120도의 뜨거운 가마에 볶는 데 비비지 않고 찻잎을 누르며 2번을 볶는다.

항저우의 유명한 '송성가무 공연'에도 차발을 배경으로 차 따는 장면을 소재로 한 내용이 나온다. 이때 개완에 우린 차를 귀빈석에 주는 데 잎이 아주 작은 녹차였다. 여유롭게 삶을 즐기며 사는 항저우 사람들의 생활은 '차관(茶館)'에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항저우의 차관은 단순히 차 마시고 헤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주말이면 친지나 친구들과 차관에 모여 종일 시간을 보낸다. 현재 700여 개의 차관이 성업 중이며 가장 오래된 차관인 청등(靑藤)의 경우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니 차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서호와 인접해 있는 서광로 차에 거리에 가면 다양한 특색을 지닌 차관이 모여 있다. 골목마다 자리한 차 상점과 찻집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시간을 음미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익숙한 '차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훨씬 더 깊고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있었다.

찻집에 앉아 처음 마주한 것은 바로 용정차였다. 다관에 따뜻한 물이 부어지고, 잎이 서서히 펼쳐

“용정차는 녹차의 한 종류로 같은 녹차라도 찻잎을 건조하는 방식이나 토질, 기후에 따라 차 맛이 달라지며 중국에는 200여 가지의 녹차가 있다고 한다.”



지며 물빛이 은은한 연두로 물들어 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풍경이었다. 향을 맡아 보니, 갓 돌아난 풀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맑고 싱그러웠다. 한 모금을 천천히 머금자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 여운은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차맛에 함께 한 일행들과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맛이였다.

여러 차를 마셔 보았지만, 용정차가 특히 기억에 남은 이유는 그 '신선함' 때문이었다. 발효되지 않은 녹차 특유의 청량함 속에서도, 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깊은 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동안 마셔 온 녹차와는 또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고,



햇차의 풋풋함이 살아있는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차를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어지는 듯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곳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라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기보다는, 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중국 특유의 고음의 생생한 대화는 시끄러우면서 유쾌하다. 그리고 세월이 묻어있는 공간의 분위기까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번 기행을 통해 나는 차를 '마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차는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마음으로 시간을 받아들이는 다원적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여행의 피로를 잊고 잠시 멈추어 짧은 시간이지만 송나라 시대의 고도에서 현재의 차를 맛볼 수 있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차를 우려내고 그 향을 음미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삶을 조금 더 깊고 여유롭게 만드는 가장 소박한 방법일 지도 모른다. ☯

찾잔에 담긴 성장의 시간

글_전남지부 김라예·김라이 아버지 김 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 나는 예절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길로 ‘차(茶)’를 선택했다. 2024년 그렇게 아이들과 나는 처음 마운다미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다. 조심스럽게 찾잔을 들고, 차를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어려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차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는 듯했다. 뜨거운 물을 따르고, 한 잔의 차를 정성껏 내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차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었다. 어른들께 두 손으로 차를 올리고, 공손히 인사를 드리며 덕담을 듣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내면적으로 성장해 갔다. 말로만 가르치기 어려웠던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차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차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2025년 처음으로 대회라는 무대에도 서게 되었다.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배운 예절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부모인 나에게는 아주 대견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좋은 평가로 이어졌고, 상이라는 결과도 따라왔다. 하지만 내게 그 순간은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대회 이상의 의미였다.

아이의 노력을 누군가 따뜻하게 바라봐 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로서 참 큰 위로이자 감동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며 부모로서 마음 깊이 강한 울림을 느낀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그중에서도 올해 5월 하동 대회는 오래도록

“아이의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다. 배운 예절대로 차를 올리고, 손님 잔과 자신의 잔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마음속으로 ‘손님 잔, 내 잔’을 되뇌며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은 부모인 나조차 숙연하게 만들었다.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잊지 못할 것 같다. 운영 과정의 실수로 둘째 아이의 순서가 누락되었고, 결국 아이는 홀로 무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걱정했다. ‘과연 저 작은 아이가 혼자 저 무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는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다. 배운 예절대로 차를 올리고, 손님 잔과 자신의 잔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마음속으로 “손님 잔, 내 잔”을 되뇌며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은 부모인 나조차 숙연하게 만들었다.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큰딸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해 보성 대회에서 아쉽게 입상을 놓친 뒤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처럼 쉽게 포기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예상과 달리 아이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늦은 밤까지 혼자 연습을 이어갔고, 결국 하동 대회에서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차를 내리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절망을 견디는 법,

노력하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다.

부모마다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차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차를 배우며 예절과 인내를 익혀가고,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 마음과 기다림을 배워간다.

한 잔의 차가 우리 가족에게 준 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찾잔을 마주한다. 앞으로도 차를 배우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다. ☕



차와 함께 자라는 마음

한국 차문화의 꿈을 이어가는 청소년 차인 백두산

글_전남지부 한재중학교 백두산



담양 한재중학교 1학년인 백두산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차와 함께 성장해 온 청소년 차인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차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차생활을 이어오며 차문화의 아름다움과 예절을 몸소 익혀왔다. 또래 친구들이 다양한 취미와 활동을 찾아갈 때, 백두산 학생은 차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왔다. 차는 백두산 학생에게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마음을 담아내는 소중한 문화이자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차를 따르던 어린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도 자연스럽게 성장해갔다. 차를 배우며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예절이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차분함은 차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고, 차를 배우는 시간이 단순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백두산 학생은 그동안 다양한 차예절대회와 차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보성, 인천,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린 차예절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상과 금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보성 차예절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경연대회에서는 선비다례를 선보이고 영예로운 대상까지 수상하며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단정한 태도와 정성스러운 차 시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어린 나이에도 차를 대하는 진지한 마음이 돋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백두산 학생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차의 모습은 화려한 대회 무대보다 일상 속에 있다. 평소 집에 손님이 오시면 직접 다기를 준비하고 차와 다식을 정성껏 차려내는 일을 좋아한다. 차의 종류에 어울리는 찻잔을 고르고, 다식을 예쁘게 담아 손님상에 올리며 따뜻하게 차를 권하는 시간을 즐긴다. 차를 마시는 공간의 분위기와 향기까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모습에서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섬세함과 배려심이 느껴진다.

특히 차를 내어드린 손님들이 “차가 참 향기롭

다.”, “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가장 기쁘다고 한다. 한 잔의 차를 통해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차와 가까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차를 배우면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예쁜 말투, 차분한 태도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는 점도 백두산 학생이 느끼는 차생활의 큰 행복 중 하나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생활과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차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마운다미원 김경자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차를 배우며 녹차와 홍차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고, 함께하는 친구 동생들과도 차를 함께 나누며 차문화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백두산 학생은 차를 배우며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도 더욱 깊어졌다. 차를 통해 계절을 느끼고, 자연의 향기를 배우며, 천천히 기다리는 여

유의 가치도 알게 되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 나이의 학생에게 큰마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전하고 있다.

백두산 학생의 꿈은 앞으로도 차와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꼭 큰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도, 차를 통해 많은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차를 가르쳐주고, 차의 아름다움과 예절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부터 차와 함께 성장하며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두산 학생은 우리 전통 차문화를 이어갈 소중한 꿈나무이다.

은은한 차향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을 가진 백두산 학생의 앞으로의 성장과 발걸음이 더욱 기대된다. 차를 사랑하는 진심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울림을 전해줄 것이다. ❷

* 본 글은 백두산 본인이 3인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봄빛 속에 피어난 차향의 만남

글_전문사범 조은비주

따스한 봄기운이 완전히 스며든 부안군 개암사 산사에서 (사)한국차문화협회 제10기 전문사범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법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문화를 나누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광주를 비롯하여 전북, 광주광역시, 그리고 가장 먼 부산에서까지 사범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부산에서 오신 이수현 선생님과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하신 별교에 계신 윤숙희 선생님의 합류로 더욱 반가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입고 주지

스님께 인사를 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은 후, 저녁 공양을 함께하였다. 공양 후에는 사찰의 고요한 저녁 풍경 속에서 산책이 이어졌다. 산속에는 연보랏빛 제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숲속 곳곳에는 하얀 꽃들이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계곡물은 맑게 흐르고, 봄 햇살 속에는 아지랑이가 은은히 피어올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선물하였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다담 시간이 이어졌다. 정점순 회장님, 남미선 선생님 그 외 전북지부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오신 차, 과일 떡을 함께 나누며, 차의 제조 과정과 향, 그리고 깊은 맛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차를 음미하며 나눈 대화는 단순한 시음을 넘어 서로의 내면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모임은 매년 3월 한 차례 진행되는 정기 모임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순서도 마련되었다.
전북지부의 손영란 선생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칠교놀이 교구를 제공하였고,
조은비주 선생님은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다.**”

으로, 올해는 유난히 포근한 날씨 속에서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순서도 마련되었다. 전북지부의 손영란 선생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칠교놀이 교구를 제공하였고, 조은비주 선생님은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고관절 교정 운동에 대한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며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도 공유되었다.

서로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후에는 차기 모임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밤 10시경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다. ☯



대학원 첫 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글_ 전북지부 24기 전문사범 교육생 반장 이영서



봄빛이 채 가지지 않은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는 한 잔의 차를 사이에 두고 새로운 배움의 길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설 때의 설렘과 조심스러움은 수업이 시작되며 어느새 고요한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진중한 눈빛과 단정한 마음가짐 또한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모였지만, 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같은 향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임에도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남은 수업 일정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차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다법과 이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마음의 결을 다듬어 가는 과정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에는 마치 오래된 벗을 다시 만난 듯한 잔잔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차는 결국 사람을 닮아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뒤을수록 깊은 향을 내는 좋은 차처럼, 우리 또한 배움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은 덜

어내고, 은은한 품격과 향기를 지닌 사람으로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수업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삶의 속도를 고르게 다듬어 가는 조용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으로 귀한 배움의 첫 문을 열어주신 교수님과 이사장님 외 각 지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잔의 차가 마음을 맑게 하듯, 오늘의 배움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향기롭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



2026 9월 하반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교육생 모집

교육 과정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준사범)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지도사범) 교육
- 모집 인원 : 00명

개강 일시 및 장소

2026. 9. 중(전국 지부 교육장)

교육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동영상) 병행

교육 이수 후 자격취득 사항

- ① 등록민간자격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 2급
- ② 등록민간자격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 단, 필기와 실기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

접수 (온라인 접수: 2026. 8. 31.까지)

- 협회 홈페이지(www.koreatea.or.kr)
- 교육안내
- 기초(준사범) 교육 또는 인성차문화(지도사범)
- 교육신청접수

협회소식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국내 유일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규방다례를 보존, 보급하는 단체이다
(사)한국차문화협회는 국내 최대 최고의 차문화교육기관으로 지난 1991년 설립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명 부여

의료·교육 선도, 지역 발전 이끈 업적 기념

가천대 길병원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설립자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현 (사)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의 이름을 붙인 도로명이 생겼다.



암센터 앞 사거리에서 길병원사거리 방향 6차선 도로와 여성 전문센터 앞 2차선 도로가 해당한다. 남동구는 '가천(嘉泉) 이길여 박사'는 여성 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

해 인천 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교육 분야를 혁신으로 이끌어 왔다'라며 '박애, 봉사, 애국을 실천한 업적을 기리고자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라고 공고한 바 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도시의 위상을 알리고,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명이다.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위원회,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지정한다.

이를 기념하는 제막식이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가천대 길병원 대강당 가천홀에서 개최됐다. 신재경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김충진 남동구 부구청장, 이정순 남동구 의장과 남동구의회 의원, 안승묵 인천경영포럼 명예회장,

강창규 한반도통일연구원 이사장, 박철원 인천시 의사회장 등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 및 가천대 길병원 임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천길재단이 달려온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닌, 인천이라는 도시와 지역사회 시민 여러분이 보살피고 함께 키워주신 길이었으며, 의료진과 학생, 수많은 가천의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해왔기에 가능한 길이었다"며 "인천광역시와 시의회, 남동구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 관계자 분들, 가천의 가족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 "가천이길여길"이 가천길재단의 정신과 인천의 자부심을 아우르는 길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임원 제5차 한복세계화포럼에 참석

2030년 한복 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한복세계화재단이 주최하고 한복세계화포럼이 주관한 제5차 한복세계화포럼이 지난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열렸다.

협회에서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 최지원 인친지부장, 최진숙 서울제1지부장, 류소영, 문차남, 정순영, 장효순, 송향숙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제5차 한복세계화포럼은 지난 2024년 7월 2일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전 11시 30분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정순훈 이사장의 개회사, 명유석 추진위원의 경과보고, 이상은 교수의 특강 '한복진흥법 제정의 중요성'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은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왕조 500년 복식전 자문, 가야 복식 제작 고증, 국제교류 전시 및

패션쇼 등 전시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 (사)세계전통복식문화원장이다.

이상은 교수는 특강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한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고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라고 말했다.

포럼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가장 많이 입는 단체는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최고일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한복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규방다례에 맞는 한복 입기는 우리 협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복세계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2030년 한복 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차문화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계연수회 개최지 선정 위한 현장 답사 진행

세종, 천안, 용인 등 현장 답사를 통해 최적지 선정

협회 임원진이 2026년 하계연수회 개최 장소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7일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차영민·강정자·박광옥·박숙희·박경숙 부회장이 함께했다.

첫 번째 답사지는 세종시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으로, 임원진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행사 운영 가능성을 점검했다.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은 협회가 과거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했던 장소로 접근성과 위치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건물의 노후화와 행사장 및 숙소 간 이동 동선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이후 임원진은 박숙희 부회장이 예약한 청주시 흥덕구 소재 상춘고택으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박숙희 부회장이 운영하는 씨스네티룸으로 자리를 옮겨 협회의 발전 방향과 연수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답사지인 천안상록리조트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위치한 종합휴양시설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가족호텔과 연수시설, 유스호스텔, 실내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행사장과 숙소 간 이동 동선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용인 씨닝 리더십센터는 넓은 연수 공간과 쾌적한 시설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넓은 창과 잘 갖춰진 식당 환경

등이 좋은 인상을 남겼으며, 전반적인 강의장 시설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협회 임원진은 이날 답사를 통해 세 곳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으며,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35회 정기이사회 개최

다양한 안건, 원안대로 가결되다

협회는 지난 2026년 3월 10일 협회 교육장에서 제3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개회, 성원보고, 이사장님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가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강정자, 강순란, 박숙희, 박광옥, 박경숙 부회장을 비롯하여 최점순, 최지원, 김태임, 김미숙, 정경희 지부장과 경남지부 하식 이사, 전남지부 이정희 이사, 광주지부 노영숙, 박삼숙 이사, 인천지부 강희옥 감사, 이막동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어려웠던 코로나19가 지나면서 협회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이사님과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에 상정된 안건은 제1안 2025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제2안 2026년 사업계획(안), 제3안 협회 임원 선임(건), 제4안 지부 운영 회칙 변경(건), 4. 기타 안건이다.

강희옥 감사의 감사 보고 후 협회 임원 선임 건이 보고되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박경숙 지부장이 부회장으로 임명, 최진숙 서울제1지부장으로 임명, 송향숙, 정순영 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이사로 임명, 인천지부 신은주, 원종혜 전문사범 이사로 각각 임명되었음을 보고했다.



원로 차인들과 차담회 가져

협회 원로 김판인 고문, 이해자 수석부회장 등 참석

협회 최소연 이사장과 김가영·박광옥 부회장은 지난 4월 13일 광주광역시에서 협회 김판인 고문과 이해자 수석부회장을 만나 협회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회 최소연 이사장과 김가영·박광옥 부회장은 지난 4월 13일 광주광역시에서 협회 김판인 고문과 이해자 수석부회장을 만나 협회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는 한국 차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인설 이귀례 차인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숭고한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는 한국제다 '차생원'에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차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인들의 발걸음과 함께 차문화의 저변 확대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더불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차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차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은 최소연 이사장과 김가영, 박광옥 부회장이 광주의 원로 차인들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차문화 발전에 관한 차담회로,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제58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에 협회 임원 참석

제35대 수상자였던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회고

제58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예능대회 및 추대식이 지난 2026년 5월 11일 서울 홍릉 옆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궁중의례원에서 개최되었다. 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정자, 박광옥, 박경숙 부회장과 최진숙 서울제1지부장과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올해로 58회째를 맞이한 신사임당은 민화가 이매자 씨가 선정되었다. 우리 협회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제35대 신사임당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신사임당으로 추대된 이후 지금까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과 함께 왕성한 사회사업

을 펼치고 있어 큰 교감이 되고 있다. 이날 신사임당 추대식이 끝난 후에는 대구경북제1지부 박경숙 부회장이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회원들께 저녁을 대접했다. 저녁 자리에서 다가오는 '스승의 날' 행사 등 협회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김가영 부회장 댁에서 교육위원회 개최

전국 차인큰잔치 및 하계연수회 개최 장소 의견을 나누다

지난 3월 20일 협회 교육위원회는 김가영 부회장의 새 보금자리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2026년도 교육위원회 겸 다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 부회장의 이사 집들이를 겸해 진행되었으며, 협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김가영 부회장은 오랫동안 서울 종로구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마곡동 르웨스트로 이주했다. 르웨스트(LeWest)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조성된 복합단지로, 마곡마이스PFV가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평생 종로구에서 생활하다 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며 “협회 최소연 이사장님과 임원들을 꼭 초청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차영민·김가영·강정자·박광옥·박경숙 부회장과 민달래 팀장, 유현주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

들은 협회의 주요 행사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차인큰잔치’ 개최 장소와 하계연수회 개최 장소 등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도호부관아에서 열려온 전국 차인큰잔치는 장소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새로운 개최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여러 후보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잠정적으로 전국 차인큰잔치는 인천시 상상플랫폼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1차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여름 하계연수회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장소를 직접 시찰하며 검토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김가영 부회장의 정성 어린 준비로 점심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차와 음식이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이어갔다. 회원들은 새롭게 동지를 둔 르웨스트에서 김 부회장이 늘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또한 이날은 박광옥 부회장의 생일과도 겹쳐 더욱 의미를 더한 교육위원회 다담회가 됐다.



• 차문화협회 하반기 일정 •

자격검정 일정

1급 필기시험

1. 원서접수: 2026년 6월 22일(월)까지
필기 및 실기시험 동시 접수
2. 시험일시: 2026년 7월 4일(토) 오전 10시~12시
3. 자격명: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4. 장소: 서울 협회

2급, 3급 필기 및 실기시험

1. 시험일시: 2026년 7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16시
2. 자격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홍차티마스터
3. 장소: 서울 협회

제67회 하계연수회

1. 날짜: 2026년 8월 22일(토)~23일(일) 1박 2일
2. 장소: 씨닝리더십센터
3. 주소: 경기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 51번길 205
4. 접수마감: 2026년 7월 13일(월)까지
※ 참석자 명단과 함께 제출
5. 준비물: 한복, 필기구, 간편복, 개인 찻잔 필수



22기 차문화대학원생, 교토지부의 10주년을 응원하며

글_인천지부 이사 원종혜

차문화대학원 22기를 대표하여 4명의 전문사범들이 4월 4일~6일 2박3일간 교토지부의 1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다. 22기 동기인 교토지부 이토 카즈코상이 1년 전부터 초대해 주셔서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몇 분이 주말에 시간을 내 주셨다. 서울, 경남, 제주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움직여서 오전 10시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이토상을 만났다. 이토상도 공항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우리를 마중해 주었다.

이토상의 안내에 따라 오사카 시내의 '사카이 리쇼노모리(さかい利晶の柱)'에 들렀다. 일본 다도

의 대표적 인물인 센리큐(千利休)는 오사카 지역의 사카이(堺) 출신인데, 이것을 기념하여 센리큐의 일생에 대해 소개하고 당시 사카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알차게 되어 있는 전시관이 있었고 센리큐의 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비석과 우물이 있었다. 한국어로 안내가 나오는 태블릿을 무료로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자세히 관람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관람 후에는 센리큐의 다도를 계승하는 세 유파의 일본 다도 체험도 할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교토에서 이토상이 추천한 작은 대만 찻집으로 가서 백목단, 노수선, 극품육계 등 암



이토상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외지부의 활동에
우리가 더욱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를 즐기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교토시 권업관 미야코멧세로 향했다. 교토지부 회원들은 일찍부터 시연을 펼칠 무대를 준비하고 기념품, 다구, 한지공예 등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 이토상이 “대학원 동기들이 응원하러 왔어요!”라며 소개를 해 주었다. 이토상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바쁜 중에도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외지부의 활동에 우리가 더욱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곧이어 이사장님과 협회 임원들께서 도착하여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에서 10년 동안의 교토지부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시면서 교토지부의 수고에 감사하고, 더욱 발전하여

10년 후에 다시 기념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말씀을 하셨다. 교토지부는 그동안 차회, 박람회, 신년회, 교류회 등 여러 찾자리에 참석하여 한국의 다례를 소개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차문화 교실을 진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화교실도 열고 있었다.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는 회원들끼리 모여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교토지부의 10주년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더 오래 머물며 우지(宇治)의 차밭도 둘러 보고 후쿠주엔(福寿園) 등 유명한 차 매장도 둘러보고 싶었으나 시간의 여유가 없어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며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차를 사랑하는 동기분들과 차의 맛과 향을 논하며 깊은 얘기를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 서울지부 진인순, 경남지부 박은화, 전북지부 소유미 사범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2기 사범님들 다음에는 좀더 길게 좀더 많이 차문화 기행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충북지부

경 남 지 부

유럽 차문화 특강 청취

인제대학교에서 동·서양의 차문화 강의 청강



지부장 황미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동·서양의 차문화를 직접 비교·체험하는 유럽 차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인제대학교 티테라피연구소에서 주최한 “동·서양의 차문화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중인 차 전문가 도리스 요한나 아니타 간과 독일의 쿤터 감머를 초청하여 특강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유럽에서의 차의 여정’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차 애호가 유형’을 주제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차의 흐름부터 현재 유럽 내 차 소비 흐름까지 폭넓은 내용의 강의를 해주었다.

유럽의 차 애호가 유형을 4 분류로 나누었는데, 허브나 과일차 애호가 수(22%)는 유지되고 클래식 아 애호가(38%)는 줄어들며, 스페셜차 애호가(탐

험가 34%)는 늘어나고 힙스터 차 애호가(열광 팬 8%)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과 취미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와 다를 게 없는 추세라 흥미로웠다.

글_전문사범 주영희



제73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개강

경남지부 교육장에서 차문화 공부 시작

지난 3월 8일 경남지부 교육장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제73기 사범반 개강을 하였다.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차문화에 입문하여, 취미(趣味)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들과 유익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차문화대학원 제23기 고은희 전문사범의 규방다례 시연과 차문화-차의 기본정신을 공부하였다. 이번 제73기는 인성예절교육으로 선비다례와 규방다례를 배우고 다식 실습과 제다 실습을 하고 한국의 차문화 중 전통다례와 오늘날의 차생활, 차의 고전 중 동다송을 공부하며 '전국차인큰잔치' 행사를 끝으로 하는 과정이다. 규방다례

시연에서 돕는이를 해보니 수료 학기를 실감했다. 이제 마지막 학기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글_제70기 사범반 임하늘



여민요 이일파 선생님 탐방

진주 지수면에 위치한 전통 도예가

진주 지수면 토실마을에 있는 러민요(여민요)의 이일파 도예가는 경남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전통 도예가이다. 1982년 도예에 입문하여 40년 이상 전통 기법을 고집해 온 장인으로 경남도



예장인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발 물레와 장작 가마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찻사발과 다기, 도자기를 만든다. 도예 30년전(展), 개인전(展)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전통 도예

의 맥을 잇고 있다. 지부장님께서 부인이 경남지부 사범이라 지부에서 가끔 차 한 잔 나누러 가는 곳이라고 하셨다. 또한 여민 선생님의 찻그릇은 물론 차와 차 문화사 등 해박한 지식 일부를 들을 수 있어 무척이나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았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두 가지 귀한 차를 우려 주셨다. 방어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토실마을은 '진주 지수 승산 부자마을' 근처라 부자들의 성공담도 들을 수 있었다.

글_71기 사범반 이수정



제73기 사범반 퓨전 다식 만들기

아이스 월병 (한국 화과자)만들기

꽃들이 만개한 봄날에 사범반 퓨전 다식 만들기를 하였다. 고운 찹쌀가루와 멥쌀가루, 소맥 전분, 식용유, 연유, 우유를 재료로 고급스러운 색색의 고운 화과자를 만들었다. 재료 준비에서 시간을 줄이려 미리 기본 반죽을 준비하여 완성하였다. 안에 넣는 소는 가루녹차, 아몬드 가루, 완두 양근, 가루차, 자색고구마, 단호박 가루, 커피와 계핏가루로 녹색, 아이보리, 보라, 노랑, 갈색의 색상을 내고 얇은 쌀 반죽 피에 써서 모양틀에 찍어냈다. 실습한 사범 교육생들은 "먹기 아깝네요.", "너무 이쁘네요."라며 완성된 화과자를 보며 감탄했다. 겉피가 얇을수록 소의 색상이 드러나고 시간이 지

나면 색상이 더 선명해진다. 냉동실에 얼렸다 먹으면 한국식 화과자 '아이스 월병'이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퓨전 다식 만들기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글_전문사범 정재윤



대구경북제1지부

제2사범회(다솔반) 아트라카페에서 개최 선후배 간 아름다운 만남



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 제2사범회(다솔반)은 월례회의를 맞이하여 아트라카페를 방문했다. 아트라카페는 대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청도 매전면 장연사에 있다. 제2사범회 도윤옥 회장이 준비해오신 식사 준비와 떡 과일을 모두 함께 상차림을 하고, 박선민 총무가 찻자리와 다식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이국주 사범이 메밀묵을 준비하여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정겨운 자리가 되었다. 또한 선후배 간 반가운 대화가 오고 갔다.

이어서 지부장의 간단한 협회 전달 사항을 경청하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다담시간을 가졌다. 다담시간을 마치고 우리 협회의 사범인 장연사 주지(월제 스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었고, 방문 기념 선물도 하나씩 주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준비해온 과일과 다식 차를 마시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리를 옮겨 아름다운 아트라카페에서 율놀이를 펼쳤다. 승부욕에 많은 선물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 차를 마실 때와는 눈빛이 다르다. 재미와 흥미를 더해 율쾌한 율놀이를 스트레스를 풀었다.

아트라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며, 석양으로 지는 일몰을 바라보며 선후배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낀다.

자리를 제공해 주신 월제 스님께 감사드리며, 아트라카페의 발전을 기원하며 제2사범회 월례회의를 마쳤다.



전문사범 교육색 한발제다로 제다체험

차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다

대구경북제1지부 전문사범 교육생들은 아침 일찍 즐거운 마음으로 제다실습을 떠났다. 하동에 있는 한발제다로 도착해서 이론 강의 30분 듣고, 채엽 체험 30분을 한 다음 차 만들기 시작했다.

차를 덫은 다음 유념 2차 3차 해놓고 후불 처리를 위하여 건조시키는 동안 점심을 먹었다.

후불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남아 가까운 사찰과 화



개장터를 한 바퀴 둘러보며 주변을 관광했다. 관광 후 체험장으로 와서 마지막 후불처리를 하고 녹차가 완성되는 것을 보았다. 제다체험을 하면서 차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가 알차게 느껴지며, 차가 주는 많은 이로움을 생각해 본다.

글.전문사범 교육생 강숙현

다식 수업으로 화전놀이를 가다

차와 꽃 떡이 있는 봄날의 여유

대구경북제1지부는 다식 수업이 있는 날 화전놀이를 갔다. 지부장님의 지도로 찰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쁜 꽃들을 준비했다. 모두 둘러앉아 꽃 떡을 빚었다. 팬에 구워낸 꽃 떡은 한 폭의 수를 놓는 듯 예쁘다. 다식으로 점시에 담고 찻자리를 펼쳤



다. 모두 행복한 시간을 즐기며 봄 향기에 도취되었던 장소를 제공해주신 도함요 최수연 사범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차생활이란 알 수 없는 향기를 가져다준다. 우리는 서로의 정담을 나누며 행복한 다담 시간을 가졌다.

글.전문사범 교육생 조은경

서울제1지부

서울제1지부 개강식을 마치고

개강식에서 맺은 인연 오래가길

서울제1지부 개강식은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연과의 첫 만남을 기다리는 설렘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제1지부를 위해 애써주신 이기분 지부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새롭게 취임하신 최진숙 지부장님께 바통을 넘기시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차의 인연’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강식에서는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선 신입 사범교육생 여러분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설레는 눈빛과 조심스러운 미소 속에서 처음 차를 배우던 저 자신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차를 배운다는 것이 단지 좋은 차

를 우리는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공경하고 마음을 나누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 잔의 차 속에는 오랜 시간 선배 차인들께서 지켜오신 정성과 품격,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저 또한 후배 차인들에게 차향처럼 은은하고 오래 남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많은 교육생이 서울제1지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후배들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선배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차향은 머물다 사라지는 듯하지만, 그 향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개강식에서 맺어진 오늘의 인연 또한 그 차향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글·이사 신연서



지부장 최진숙

‘다견집’과 자수 놓기 특강

강정자 부회장 재능기부로 진행

5월 16일 전국 차인큰잔치 일정 변경으로 특강을 준비하게 되면서 걱정과 우려가 앞섰습니다. 특강으로는 교육생 선생님들을 위한 ‘다견집 만들기’와 자수 놓기, 한복 바르게 알고 입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다견집’을 직접 만들고 자수를 놓는 활동이 낯설게 느껴져 힘들어 할까 봐 걱정되었으나 강정자 부회장이 친근하고도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교육생들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생 중에는 남자 교육생도 계셨고, 자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 바늘을 잡는 손길은 다소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며 점차 손길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견집’의 형태가 서서히 갖추어지고, 천 위에 수가 놓이며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선생

님들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수제네요.”, “수를 놓다 보니 집중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자수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요.”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다견집’을 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몰입과 기쁨을 경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업체에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서툰 솜씨일지라도 스스로 만든 ‘다견집’은 그 어떤 제품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교육생들 역시 직접 만든 ‘다견집’에 깊은 애착을 느끼며, 소중한 ‘다견집’에 다견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번 수업을 진행하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제2지부

차로 맺은 서울제2지부, 지부단합대회

경기도 곤지암 화담숲에서 우애와 배려로 한몸이 되다

추운 겨울바람과 추위가 지나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시작되었다. 봄바람의 기운에 힘입어 우리 지부 회원들은 4월 21일 1박 2일로 봄나들이 겸 지부 단합대회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으로 다녀왔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여러 종류의 차와 푸짐한 먹거리, 다식 보따리를 풀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움을 나눴다. 부회장님과 회원들이 준비한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시며 우리 지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화담숲의 수선화 축제와 더불어 봄의 화려한 꽃과 싱그러운 푸른색의 잎을 간직하고자 모노레일을 탔다. 다행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바로 탈 수 있었다. 모노레일을 타고 우리는 소녀로 돌

아간 듯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끈끈한 우애와 배려 속에 즐겁게 지냈다. 저녁 식사 후에 찾자리를 하면서 차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해주고, 격을 높여주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부회장님의 풀어주시는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생각과 행적들을 들으며 많이 그리워하는 시간도 가졌고, 존경하는 부회장님과 어르신들이 계셔서 좋다는 말씀과 우리 회원들 간에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가 합쳐져서 밤을 꼬박 지새우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벽을 지나 아침이 밝아 왔다.

단합대회를 마무리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바르게 잘 배워서 널리 알리고,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글·이사 송향숙



지부장 박광옥



서울제2지부 개강식

새로운 차인들의 맞이하면서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서울제2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강식이 열렸다. 늘 그렇듯 개강식은 설렘과 기대를 품게 하지만, 이번 개강식은 조금 더 특별한 분위기로 다가왔다.

한복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새로운 회원분들과 이미 한복 착용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는 서울제2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사랑해 온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반갑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따뜻한 긴장감이 흐르던 시간이다. 하지만 차 한 잔이 놓이는 순간, 어색함은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진다.

개강식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부회장님의 열린 수업 진행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자리하시고,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살피시며 눈높이 맞춤 교육으로 많은 회원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새로운 회원분들 가운데 특히 차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첫날부터 정말 다양한 차를 함께 마시며 차의 향과 맛, 우리의 깊이 대해 자연스럽게 품평이 이어졌다.

다구에 따른 차 맛의 변화를 느끼며, “이 차는 끝맛이 참 부드럽네요.” “오늘 물의 온도가 차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처음이라는 거리감은 어느새 공감과 웃음으로 바뀌어 갔다. 차는 역시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배움 앞에서 늘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야말로 우리 지부가 지향하는 품격 있는 전통문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울제2지부는 단순히 한복을 입고 차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전통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 가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회원들과 기존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앞으로의 시간, 차를 통해 나누게 될 이야기들, 그리고 한복과 전통문화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인연들이 벌써 기대된다.

아직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조심스러운 첫걸음 속에는 분명 따뜻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앞으로 서울제2지부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저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글·전문사범 허유진

차와 마음을 잇는 대화 - 북촌문화센터

차문화를 보전 발전시켜야 함을 새삼 느끼다

북촌문화센터 한옥 방에 앉아서 겨우내 담아두었던 창문을 열고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는 나뭇가지와 흙 내음과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 문화센터 차실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기분 좋은 서로의 기운이 왕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딸이 결혼해서 남편과 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딸이 우리나라의 차와 다도,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협회의 규방다례, 우리나라의 차와 다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녹차를 우리는 생활차 행다를 배우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오서

서 함께 차를 마시고, 맛있는 다식을 먹고 가루차 행다도 경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한 달의 수업 시간이 훌쩍 지나고 헤어지게 됐을 때 규방다례, 우리나라 차와 다식, 문화 등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는 해주셔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타국에서 살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워 좋았고, 생활하며 차를 마시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더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에서 지금까지 잘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_이사 류소영



아 산 지 부

2026년 새 학기 개강식 열려

새로운 마음과 덕담으로 한 해를 시작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 회원들은 개강식을 맞이하여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었다. 2026년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국차문화협회와 지부의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회원 간 우애와 화합의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차에 입문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2026년이 되자고 다짐하며, 새해 떡국을 먹으며 정담을 나눴다.



향교 춘계 석전대제 찾자리 지원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하는 자리였다

2026년 아산 향교 춘계 석전대제에서 아산지부는 찾자리 봉사를 했다.

그동안 사범 위주의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신입 교육생 위주의 찾자리 봉사를 했다. 향

교는 배향공간의 중심건물이 대성전이고, 강학 공간의 중심건물인 명륜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와 교육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문묘는 대성전, 동무, 서무를 통칭하며 이곳에서 매년 제례를 올린



다. 석전대제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은 아산지부에서 제공한 차를 마시며 흡족해했다.



우리의 차문화 보급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였지만, 보람찬 하루였다.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원 진행

차와 명상을 통해 치유

아산지부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차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는 대략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현재 수강생은 15명으로 어린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 그런지 강의 중 한 사

람이 웃으면 모두가 함께 웃는 맑은 영혼들이다. 차를 우리고, 차를 마시는 수강생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들의 밝은 미소 덕분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아산지부, 독성서원 경현사 승모제 거행

매년 제향을 통해 전통을 잇는 가교 역할

독성서원 경현사 승모제가 아산지부 회원과 일반 시민, 아산시 유림회원 등이 참석해 초헌관이 배향된 인물의 위패 앞에서 분향했다.

독성서원은 조선 철종 9년(1858년) 서울과 지방 유림의 의견을 모아 독성서사로 세워졌다가 고종 5

년(1868년) 9월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린 것을 지난 2004년 4월 30일 복원한 것이다.

아산지부는 매년 승모제에 참석하여 찾자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충효교실 등을 통해 선비정신인 인의예지신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향교문화원 개강

우리 차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아산지부는 향교문화원에 개설된 다도반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다도반은 지난해보다 회원 수가 줄었으나, 마지막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다도반은 대개 실내수업으로 진행하지만, 가끔



야외 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봄꽃이 활짝 핀 야외에서 다도반 수업을 할 때는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우정을 나눈다. 또한 올해 나온 핫차를 마시며 우리 차의 소중함과 매력에 빠지다.

외암리 다례 체험 개강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대상

봄이 되면서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외암마을 상류층 가옥 대청마루에서 다례 체험 교실을 개강했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다례 체험은 전국에서 외

암마을로 관광을 오신 관광객들에 차를 대접하면서 우리의 차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다례 체험을 끝낸 후에는 녹차를 대접하면서 우리의 차문화를 알릴 기회가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



인천지부

차문화를 배운 2년간의 세월 차를 통해 선·후배의 정을 느끼다

차문화협회에서 보낸 2년간의 세월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차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배워가는 여정이었다. 첫 입문 때는 차란 혼자든, 여럿이든 우리거나 끓여서 마시면 되는 거지 하는 나의 상식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차의 역사와 기원, 같은 찻잎으로도 제다 과정에 따라 오묘하고 깊은 맛과 향을 지닌 여섯 가지 다류가 만들어진다는 것, 차의 연구, 보전, 보급을 위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역사 속 인물들을 알아가며 광범위한 분야임을 느꼈다.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인 종강식은 그동안 배워온 뉘는 절로 시작해 선배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차와 다식을 사이에 두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동안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한

잔의 차에 새겨진 듯했다. 차발 체험, 전국 차인콘잔치,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등 그 시간 속에 그 자리에 항상 계셨던 총무님, 선배님들 아낌없는 열정으로 독려하고 지도해 주신 지부장님이 계셨으므로 가능했다.

아직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차를 우려내어 나누는지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다. 온화한 표정으로 주고받는 담소와 조언도 마음에 느껴진다. 차문화가 지닌 독특한 장점과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강은 끝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출발을 상징한다. 그간 좋은 일도 섭섭했던 일도 있었지만, 고요한 시간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

글.전문사범 김혜숙



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 새 학기 맞춰 개강식 열어

신입 및 기존 회원 다수 참석

2026년 인천지부 개강식은 초·중·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에 맞춰 진행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음먹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더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인천지부 70기부터 73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학기도 즐기면서 공부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글_전문사범 이윤희



봄날, 가천대 캠퍼스에서 사범회

차를 통해 맺어진 인연, 서로에게 힘이 되다

가천대학교 캠퍼스에 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날, 우리는 따스한 햇볕 속에 차를 나누며 한자리에 모였다. 물이 끓자 깊은 향을 내고, 그 은은한 차향 사이로 벚꽃은 바람에 실려 흩날리며 봄날의 정취가 깊어진다. 지도사범 과정을 마치고, 더 큰 배움의 길로 나아 간 선생님들과 대학원 입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며, 이 만남은 한층 더 깊은 의

미로 다가온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마음에 새긴다.

차를 마시며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온기로 남고, 이 봄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머물 것이다.

글_전문사범 마숙경

전 남 지 부

내 손으로 빚은 녹차의 향기, 녹차 제다실습

보성 보림제다서 2급 교육생 제다실습 진행



지부장 서난경

지난 2026년 5월 9일,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소속 2급 교육생 11명은 전남 보성에 있는 '보림제다'를 찾아 녹차 제다실습에 참여했다. 이번 실습은 이론으로만 접하던 차 제조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견이 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습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채엽부터 시작되었다. 교육생들은 엄격하게 1창 2기(하나의 싹과 두 개의 잎)를 골라 바구니에 담으며, 평소 무심코 마시던 찻잎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결실인지 새삼 확인했다. 이어지는 유념(揉捻, 찻잎 비비기) 과정에서는 찻잎을 정성껏 비비고 주무르는 작업이 두

차례 반복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찻잎의 세포막이 파괴되며 나오는 찻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마치 자신의 '손맛'이 찻잎에 배어드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했다.

제다의 핵심인 건조 과정은 뜨겁게 달구어진 대형 가마솥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생들은 찻잎의 향이 달아나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여러 번 건조 작업을 반복했다.

특히 가마솥 귀통이에 한 발을 올리고 몸을 지탱하며 찻잎을 매만지는 모습은 흡사 가마솥과 한 몸이 된 듯한 정성을 보여주었다. 찻잎의 감촉은 제다의 고단함을 잊게 할 만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글_2급 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충 북 지 부

우리 지부 임원들 새 학기 계획 협의하다

전국 차인큰잔치, 증평예술제, 특강 등 협의



지부장 박숙희

4월 17일 홍차전문점 씨스네티룸에서 2026년 상반기 협의회를 가졌다. 전국 차인큰잔치 참여, 증평예술제 시음회, 지부 특강 등을 협의하였다. 충북지부 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더 크고 즐겁게 도약하는 우리 지부가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홍차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월 정기사범회 진행하다

일본 차문화 등 일본 차 음미

4월 20일 정기사범회가 효동원에서 진행되었다. 차명상을 시작으로 차시(茶詩) 한 수를 감상하고, 교토지부 10주년 행사에 다녀오며 지부장님이 마련하신 갖가지 일본차들을 음미하며 일본의 차문



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익숙하게 차를 우리는 신승연 사범 덕에 맛있는 차를 듬뿍 마셨다. 노군자 사범이 기증한 차나무 묘목들을 나누며 귀한 차나무들을 나눠준 따뜻한 마음을 새겨 보았다.

우리 지부 3월 사범회 갖다

2025년 결산 및 2026년 운영계획 협의

우리 지부 사범회는 2026년 새 학기를 여는 사범회를 3월 23일 오후 6시 우리 교육장 효동원에서 열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이지만 함께 새봄맞이 대청소 후 새로운 시작에 감사하며 저녁밥을 나누었다. 지부장님이 마련해주신 찰밥과 떡, 솜씨 좋은 윤기순 사범의 맛있는 반찬들, 김영희 이사님의 영양 빵 만들기로 즐거움이 더해졌다.

2025년 사범회 결산보고와 2026년 운영계획을 협



의한 후 금로수제차와 동방미인차, 이민에 사범이 준비한 차화석, 한영선 사범이 준비한 기문홍차를 김선경 전문사범이 맛있게 우려주어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증평예술제 시음회 마련하다

녹차, 백련녹차, 홍차, 보이차 등 선보이다

4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우리 지부는 증평예술제 시음회를 마련했다. 한국예총 증평지회장을 맡은 전인숙 사범이 중심이 되어 김동례, 신승연, 정미영, 임미희 사범이 정성스럽게 시음회를 진행하여 증평군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틀 동안 녹차, 백련녹차, 홍차, 보이차 등 다양한 차를 선보이며 우리 지부를 홍보하였다.



초보자를 위한 Q&A

☕ 차의란 무엇인가?

차(茶)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가공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차나무에서 나오는 차는 가공 방식에 따라, 녹차, 백차, 황차, 청차 백차, 홍차, 흑차 등 발효와 산화 정도에 따라 달리 부른다. 차는 대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이다. 인삼차, 유자차, 울무차, 칩차 등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가공하여 물을 부어 마시는 것은 차(茶)와 구별하여 '대용차'라고 부른다.

차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예절·명상·사교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는 차문화가 발전했다. 또한 차에는 카페인, 테아닌,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각성, 향미, 떫은맛 등에 영향을 준다. 특히 녹차는 다양한 효능이 숨어 있어 현대인의 건강음료로 주목받고 있다.

☕ 차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차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차는 다른 식품과는 달리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 열량을 공급하는 성분은 극히 적은 저열량 식품이면서 체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하루 10잔 정도의 차를 마시면 1일 필요한 비타민 C의 80% 이상을 보충할 수 있다.

둘째, 차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 음료이자 건

강을 지켜주는 건강음료이다. 또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음료로서 수천 년 동안 차만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애용되어온 음료는 아직 없다.

셋째, 녹차는 식품의 생체 조절작용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카테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에 대해 예방과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차는 매년 4월 5일 청명 때부터 찻잎을 딸 수 있다. 하지만 4월 20일 곡우를 전후로 한 찻잎을 차로 만들어 마신다.

차는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로 구분한다. 첫물차는 다시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전은 곡우를 전후하여 수확한 어린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한다. 세작은 곡우 이후 약 10일 동안 수확한 찻잎으로 만든 차, 중작은 입하부터 5월 초순까지 수확한 보통 크기의 잎으로 만든 차, 대작은 5월 중순경 수확한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한다.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의 차를 두물차, 7월부터 8월까지의 차를 세물차, 9월 이후의 차를 네물차라고 한다.

2026년 7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접수: 2026년 6월 22일(월)까지
- (사)한국차문화협회 홈페이지 민간자격 (www.koreatea.or.kr)
- 전형료: 국민 827-25-0015-983 / (사)한국차문화협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3급) 등록번호(제2010-026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6년 7월 25일(토)	2026년 7월 25일(토)
전형료	■ 3급 : 60,000원	■ 2급 : 80,000원

인성교육예절지도사(1급, 2급) 등록번호(제2015-00531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1급 : 2026년 7월 4일(토) 2급 : 2026년 7월 25일(토)	2026년 12월 19일(토) 2026년 7월 25일(토)
전형료	■ 2급 : 80,000원	■ 1급 : 100,000원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등록번호(제2015-005329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6년 7월 4일(토)	2026년 12월 19일(토)
전형료	80,000원	
대상자	전문사범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홍차티마스터 등록번호(제2018-003182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6년 7월 25일(토)	2026년 7월 25일(토)
전형료	100,000원	
대상자	홍차 초급, 중급 과정 이수한자	

- 시간과 장소 추후 공지
- 자격검정 최종 발표 : 2026년 7월 29일(수) 홈페이지 게재
- 환불규정 : 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 (사)한국차문화협회 / 대표자 : 최소연
- 연락처 : (02) 719-7816 /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3길 34, 3층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는 '등록민간자격 자격검정' 시행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햇차원
HAETCHAWON

수상내역

-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 2007 유기농 인증획득
-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제13차 대한명인 추대식

다맥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